

고1  
공통국어1  
해냄

2027 고1 공통국어1 해냄 | 2(2) 눈길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시 직전 보강



<눈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 단원은 서사 갈래의 특징과 소설의 미학적 장치들이 아주 잘 드러난 작품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

- 서술상 특징과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을 묻거나, 특정 장면을 3인칭 관찰자 시점 등 다른 시점으로 바꾸어 썼을 때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
- 소재와 배경의 상징적 의미: 제목인 '눈길'을 비롯해 '옷궤', '지붕 개량', '불빛', '햇살' 등이 인물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는 문제는 반드시 나온단다.



• 인물의 심리와 태도 변화: 주인공 '나'가 '노인(어머니)'을 대하는 태도가 냉담함에서 부끄러움과 깨달음으로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의 심리를 구절별로 파악하는 문제가 많아.

• 작품의 구성: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도 단골이란다.



그렇다면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상징적 소재들의 의미와 '나'의 심리 변화 과정을 아주 꼼꼼하게 파악해두어야 하겠네요.

정확해. 특히 시험지에서 자주 다루는 핵심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

- 인물의 관계: '나'(빛지기 싫어함, 냉담함) ↔ '노인'(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 미안함) 사이에서 '아내'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
- '옷궤'의 의미: 어머니에게는 '자존심이자 사랑'이지만, '나'에게는 '부담감과 빛'으로 느껴지는 이중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단다.



- ‘눈길’의 의미: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걸었던 길이자, 어머니가 홀로 돌아오며 겪은 **사랑과 인고의 시간**을 상징해. 이것이 주제를 형상화하는 결정적인 장치지.
- 결말의 ‘잠든 척’하는 행위: 이것은 ‘나’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지만, 차마 그것을 보이기 부끄러워하는 심리와 죄책감**을 드러내는 행동이야.



네, 전체적인 흐름은 알겠어요. 그런데 ‘불빛’과 ‘햇살’의 의미가 조금 헷갈려요. 둘 다 밝은 이미지인데, 왜 인물들이 부끄러워하나요?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 그 부분도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야. 보통 빛은 긍정적인 희망을 상징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부끄러움’을 자각하게 하는 매개체로 쓰였어.
- **불빛(현재):** 전등 불빛 아래에서 ‘나’는 눈을 뜨지 못해.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어머니를 외면했던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가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차마 불빛 아래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던 거야.
  - **햇살(과거):** 과거 눈길을 돌아온 어머니는 아침 ‘햇살’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지 못해. 밝은 햇살 아래에서, 자식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집까지 팔아먹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부끄럽고 자식에게 미안해서** 차마 들어갈 수 없었던 거지.



즉, 두 소재 모두 인물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움과 한(恨)**을 비추어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돼. 이 두 소재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렴.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100 점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고1  
공통국어1  
해냄

2027 고1 공통국어1 해냄 | 2(2) 눈길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알아 두기 지문 분석

1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성

**서사 갈래는 허구적 인물이나 사건을 특정한 시점에서 서술하는 문학 양식이다.**(정의. 서사 갈래의 개념) 서사 갈래는 주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때 **사건은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서사 갈래의 특성 ①)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문학적 효과가 달라지므로**(서술자의 역할과 영향) 작가는 **소설의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시점을 정하고 이를 자신만의 문체로 표현한다.**(서사 갈래의 특성 ②) 한국 문학의 서사 갈래에는 **신화, 전설, 민담, 고전 소설, 신소설, 현대 소설 등**(서사 갈래의 역사적 갈래)이 있다.

2 서사 갈래의 구성 요소와 맥락

서사 갈래의 구성 요소로는 **주제, 구성, 문체**(서사 갈래의 구성 요소) 등이 있다. 이때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구성의 구성 요소)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의 짜임새를 말한다. 작가는 **서술자를 통해 이러한 작품의 구성 요소를 자신만의 서술 방식, 즉 문체로 표현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서사 갈래의 주제 형상화 방법) 서사 갈래의 구성 요소들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작품 전체와 **유기적**(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 관계를 맺으며 작품 전체의 이야기 구조를 형성한다.

한편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독자 등 작품 밖의 다양한 맥락**(작품을 둘러싼 맥락)이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고 작품을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여러 구성 요소와 맥락이 결합하여 완성된 한 편의 작품은 독자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준다.

제재 지문 분석

눈길

1

<발단>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나(서술자이자 중심인물, 1인칭 주인공 시점)는 마침내 입속에서 벌려 오던 소리를 내 뱉어 버렸다.(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고민 끝에 한 말임을 행동으로 보여 줌.)

[ 노인(‘나’는 어머니를 ‘노인’이라 부르며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냄.)과 아내가 동시에 밥손가락을 멈추며 멀거니 내 얼굴을 건너다본다. ]([ ]: ‘나’의 결정이 예상 밖이었음을 드러냄. 인물들의 동시 반응을 통해 ‘나’의 결정이 예상 밖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옴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올라가다니. 이참에도 또 그렇게 쉽게?”

노인은 결국 손가락을 상 위로 내려놓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친걸음이었다.(‘나’가 그동안 고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았음을 짐작할 수 있음.)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될 바엔 말이 나온 김에 매듭을 분명히 지어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려는 ‘나’의 심정이 드러남.)

“예,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어요. 방학을 얻어 온 학생 팔자도 아닌데, 남들 일할 때 저라고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나요. 급하게 말아 놓은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도 한 며칠 쉬어 가지 않고…….”(빨리 올라가려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냄.) 난 해필 이런 더운 때를 골라 왔길래 이참에는 며칠 좀 쉬어 갈 줄 알았더니…….”

“제가 무슨 더운 때 추운 때를 가려 살 여유나 있습니까?”

“그래도 그 먼길을 이렇게 단걸음(쉬지 아니하고 곧장. 단숨에)에 되돌아가기야 하겠냐. [ 넌 항상 한동자(끼니를 마친 후에 새로 밥을 짓는 일. 문맥상 한끼 밥을 짓는 동안, 즉 짧은 시간을 의미함.)로만 왔다가 선걸음에 새벽길을 나서곤 하더라마는…… ]([ ]: 평소에도 짧게 방문하고 갔음을 짐작할 수 있음.) 이번에는 너 혼자도 아니고…… 하룻밤이나 차분히 좀 쉬어 가도록 하거라.”(아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남.)

“오늘 하루는 쉬었지 않아요. 하루를 쉬어도 제 일은 사흘을 버리는걸요. 찾길 이 훨씬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기선 아직도 서울이 천 리 길이라 오는 데 하루 가는 데 하루…….”

“급한 일은 우선 좀 마무리를 지어 놓고 오지 않구선…….”(바쁜 일을 핑계로 서울로 가려는 아들에 대한 섭섭함이 드러남.)

노인 대신 이번에는 아내 쪽에서 나를 원망스럽게 건너다보았다.(아내가 ‘나’의 결정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음.)

그건 물론 내 주변머리를 탓하고(주변머리 없음을 탓한다는 뜻. 융통성 없이 일을 답답하게 처리한 대상을 탓함.) 있는 게 아니었다. 내게 것처럼 급한 일이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아내는 바쁘다는 것이 핑계임을 알고 있음.) 서울을 떠나올 때 급한 일들은 대충 다 처리해 둔 것을 그녀에겐 내가 미리 말을 해 줬으니까. 그리고 이번엔 좀 흥가분한 기분으로 여름 여행을 겸해 며칠 동안이라도 노인을 찾아보자고 내 편에서 먼저 제의를 했었으니까. 그녀는 나의 참을성 없는 심경의 변화(어머니를 보러 온 ‘나’의 마음의 변화)를 나무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매정스런 결단(내일 아침에 올라가기로 함.)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까닭 없는 연민(‘노인’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안타까움)과 애원기 같은 것(‘나’가 마음을 달리시길 애처롭게 사정하는 마음이 담김.)이 서려 있는 그녀의 눈길이 그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었다.(아내가 ‘나’의 결정에 무심하게 반응하며 어머니와의 직접적인 갈등을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 일이 그리 바쁘다면 가 봐야 하기는 하겠구나.”(아들을 위해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체념함.) 바쁜 일을 받아 놓고 온 사람을 붙잡는다고 들을 일이겠냐.”

한동안 입을 다물고 앉아 있던 노인이 마침내 체념을 한 듯 다시 입을 열어 왔다.

“항상 그렇게 바쁜 사람인 줄은 안다마는, 에미라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도 편한 잠자리 하나 못 마련해 주는 내 맘이 아쉬워 그랬던 것 같구나.**(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바쁘다고 하는 아들을 위한 배려로 편한 잠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과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말을 끝내고 무연스런 표정으로 장죽 끝에 풍년초를 꺾꺾 눌러 담기 시작한다.**(아들에 대한 서운함, 특히 미안한 마음을 속으로 삭힘.)

너무도 간단한 체념이었다. 담배통에 풍년초를 눌러 담고 있는 그 노인의 얼굴에는 아내에게서와 같은 어떤 원망기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당신 곁을 조금씩 떠나고 싶어 하는 그 매정스런 아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도 엿볼 수가 없었다. 성냥불도 붙이려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풍년초 담배만 꺾꺾 눌러 채우고 앉아 있는 **노인의 눈길은 차라리 무표정에 가까운 것이었다.**(여러 감정과 생각에 잠긴 모습 - 바쁘다는 아들을 위한 배려와 체념, 편한 잠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자식에 대한 미안함, 며느리에 대한 부끄러움.)

**나는 그 너무도 간단한 노인의 체념에 오히려 불쑥 짜증이 치솟았다.**(노인의 체념이 오히려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불편한 감정을 느낌. '나'를 위한 배려에서, 떠나는 '나'를 붙잡지 않고 체념하는 노인을 보며 느끼는 '나'의 불편함이 드러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자리를 일어섰다. 그리고는 그 노인의 무표정에 밀려나기라도 하듯 방문을 나왔다.

★ 1인칭 주인공 시점 → 3인칭 관찰자 시점

담배통에 풍년초를 눌러 담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그의 아내에게서 나타나 보이는 원망스러운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를 떠나려 하는 아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도 엿볼 수가 없었다. 성냥불도 붙이려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풍년초 담배만 꺾꺾 눌러 채우고 앉아 있는 눈길은 차라리 무표정스러웠다.

그는 어머니의 반응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지나쳐 방문을 나왔다.

• 서술자와 시점의 차이점

- 제시된 <눈길>의 장면은 서술자가 작품 안 '나'로 등장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은 물론 심리까지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짐. 이를 바꾸어 쓴 글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하지 않고 작품 밖에 위치하여 등장하는 인물을 관찰해 서술하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짐.

-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의 심리와 행동의 의도를 분명히 제시하고, 다른 인물의 심리와 행동의 의도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서술함. 한편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표정을 관찰하여 서술하므로 인물의 심리와 행동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독자가 서술 내용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추측해야 함.

(제시된 장면(1인칭 주인공)은 주인공인 '나'의 심리와 행동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서술되는 반면, 고쳐 쓴 글(3인칭 관찰자)은 독자가 서술 내용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추측해야 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장지문 밖 마당가에 작은 **치자나무 한 그루**( : 객관적 상관물. '나'의 곤혹스러움과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심리를 드러냄. **한낮의 땡볕을 견디는 치자나무는 '나'의 곤혹스러움과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심리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가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서 있었다.

★ 객관적 상관물

사람의 심리나 정서, 사상을 사물이나 사건, 자연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

예) 유리왕, <황조가>

펼 펼 나는 저 꾀꼬리 / 암수 서로 정답구나 / 외로와라 내 이 몸은 / 뉘와 함께 돌아갈꼬: 정다운 꾀꼬리들의 모습을 작품 속 화자가 처한 외로운 상황과 대비하여 화자의 슬픈 감정을 더욱 부각시킴. 이때 꾀꼬리(자연물)는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임.

2

<전개> 지열이 후끈거리는 뒤꼇 콩밭 한가운데에 오리나무 무성한 묘지가 하나 있었다. 그 오리나무 그늘에 숨어 앉아 콩밭 아래로 내려다보니 **집이라고 생긴 게 꼭 습지에 돌아 오른 여름 버섯 형상**(고향 집에 대한 '나'의 부정적 인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함.)을 닮아 있었다.

나는 금세 어디서 묵은 빛 문서라도 불쑥 불거져 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집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 ①)

애초의 허물은 그 빌어먹게 비좁고 음습한 단칸 오두막 때문이었다. 묵은 빛이 불거져 나올 것 같은 **불편스런 기분**(집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 ②)이 들게 해 오는 것도 그랬고, 처음 예정을 뒤바꿔 하루 만에 다시 길을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내게 빛은 없었다. 노인에 대해선 처음부터 빛이 있을 수 없는 뒤틀린 처지였다.

노인도 물론 **그 점**(‘나가 노인에게 빛이 없음.’)에 대해선 나를 완전히 신용하고 있었다.

“내 나이 일흔이 다 됐는데, 이제 또 남은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길라더냐.”

이가 완전히 삭아 없어져서 음식 섭생이 몹시 불편스러워진 노인을 보고 언젠가 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권해본 일이 있었다. 싸구려 가차라도 해 끼우는 게 어떨겠느냐는 나의 말 선심에 애초부터 그래 줄 가망이 없어 보여 그랬던지 **노인은 단자리에서 사양을 해버리는 것이었다.**(아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노인의 마음.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노인'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고개를 젓고 한숨을 쉬며 말하게 한다는 시나리오 연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력저력 지내다 이대로 가면 그만일 육신, 이제와 늘그막에 웬 딴 세상을 보겠다고…….”

한번은 또 치질기가 몹시 심해져서 배변을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수술 같은 걸 권해본 일도 있었다.

노인은 그때도 역시 비슷한 대답이었다.

**“나이를 먹어도 아녀자는 아녀자다. 어떻게 남의 눈에 낫은 데를 보이겠더냐. 그냥저냥 참다 갈란다.”**

(아들의 권유를 거절하기 위한 핑계)

**남은 세상이 얼마 길지 못하리라는 체념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보다 노인은 아무것도 아들에게 주장하거나 돌려받을 것이 없는 당신의 처지를 감득하고 있는 탓에도 그리 된 것이었다.**(‘나가 노인에게 받은 것이 없으므로 ‘나가 노인에게 돌려줄 것도 없음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짐작하고 있음을 보여 줌. ‘나’의 관점에서 ‘노인’의 심리를 추측하여 제시하는 1인칭 시점의 특징이 나타남.)

【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가계가 파산**(현재 갈등의 배경)을 겪은 뒤부터,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 세조카아이와 아이들의 흠어머니까지 포함한 장남의 모든 책임을 내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일은 줄곧 그렇게 되어 온 셈이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 3년을 치러 내는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고**,(‘나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도리를 못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 나대로 그 고등학교와 대학과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도 자식 놈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다.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사양치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 [ ] : 집안의 내력, 사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함. ‘노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다고 서술한 부분에서 ‘나’는 부모의 도리를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자신과 어머니 사이를 타산적으로 계산함.)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선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가 없었다. 】( [ ] : 노인에게 빛이 없다고 믿고 싶은 ‘나’의 생각)

그런 노인이었다. 한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노인의 눈치가 이상했다. 글썄 그 가치나 수술을 한사코 사양을 해 온 노인이, 나이 여든에서 겨우 두 해가 모자란 늘그막에 와서야 새삼스레 다시 딴 세상 희망이 생긴 것일까.

노인이 아무래도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도 너무나 엄청난 꿈이었다.

**지붕 개량 사업**(어머니의 소망을 표출하게 만드는 계기이자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건)이 애초의 허물이었다.

**“집집마다 모두 도당 아니면 기와를 엮는단다.”**(역순행적 구성. 어제저녁 노인의 말, 과거 회상의 시작)

노인은 처음 남의 말을 하듯이 집 이야기를 꺼냈었다. 어제저녁 때 노인과 셋이서 잠자리를 들기 전이었다. 밤이 이슥해서 형수는 뒤늦게 조카들을 데리고 이웃집으로 잠자리를 얻어 나가고, 우리는 노인과 셋이서 그 비좁은 오두막 단칸방에 잠자리를 함께 폈다.

어기영차! 어기영……. 그때 어디선가 밤일을 하는 남정들의 합창 소리가 왁자하게 부풀어 올랐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무슨 소리냐니까 노인이 문득 생각난 듯이 귀땀을 해 왔다.

“동네가 너도나도 집들을 고쳐 짓느라 밤잠들을 안 자고 저 야단들이구나.”

**놓여놓 지붕 개량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통일벼가 보급된 후로는 집집마다 그 초가지붕 개초가 어렵게 되었다.**(통일벼로는 초가지붕을 만들기 힘들고 교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슬레이트로 지붕 개량 사업을 시행함.) 초봄부터 시작된 지붕 개량 사업은 그래저래 제격이었다. 지붕을 개량하면 정부 보조금 5만 원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모심기가 시작되기 전 봄철 한때하고 모심기가 끝난 초여름께부터 지금까지 마을 집들 거의가 일을 끝냈었다.

나는 처음 그런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턱대고 가슴부터 덜렁 내려앉고 있었다.**(노인의 소망이 자신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함. **지붕 개량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부터 덜렁 내려앉은 '나'에게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소망을 제시하는 노인에 대한 부담감이 드러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빛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이었다.**(내가 '내일 아침' 올라가기로 결심한 이유) 이 노인이 **쓸데없는 소망**(지붕 개량에 대한 소망)을 지니면 어쩌나.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무엇보다도 나는 노인에 대해 빛이란 게 없었다. 노인이 그걸 잊었을 리 없었다.**(어머니에 대한 빛을 더욱 의식함.)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선부른 주문을 내색할 리 없었다. 전부터도 그 점만은 안심을 할 만한 노인의 성깔이었다. 한데다 노인이 설령 어떤 어울리잖을 소망을 지닌다 해도 이번에는 그 집 꼴이 문제 밖이었다. **도대체가 기와고 도당이고 지붕을 가꿀 만한 집 꼴이 못 되었다.**(집이 너무 좁고 작아 지붕 개량 자체를 하기가 힘들.) 그래저래 노인도 소망을 지녀 볼 엄두를 못 낸 모양이었다. 이야기하는 말투가 영락없는 남의 일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오해였다. 노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이 집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겠군요?”

사태를 너무 낙관한 나머지 위로 겸해 한마디 실없는 소리를 내놓은 것이 **내 실수**(‘나’는 집을 고치고 싶은 노인의 속마음을 모르고 먼저 지붕 개량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알고 싶지 않았던 노인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음. 그리고 이에 불편한 감정, 즉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굳이 묻지 않아도 될 것을 질문하여 알게 된 상황이므로 자신의 말을 ‘실수’라고 표현한 것임. **지붕 개량 관련 질문을 하는 바람에 노인의 속마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부담감이 드러나, 위로 겸해 한마디 실없는 소리를 내놓은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는 내용의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였다.

노인은 다시 자리를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머리맡에 놓아 둔 장죽 끝에다 풍년초 한 줌을 쏘아 박기 시작했다.

“왜 우리 집이라 말썽이 없었더라냐.”

노인은 여전히 남의 말을 옮기듯 덤덤히 말했다.

“이장이 쫓아와 땀을 들이고, 면에서 나와서 으름장을 놓고 가고……. 그런 일이 한두 번뿐이었으면야……. 나중엔 숯제 자기들 쪽에서 사정 조로 나오더라.”

“그래 어머니 뭐라고 우겼어요?”

나는 아직도 노인의 진심을 모르고 있었다.

“우길 것도 뭇도 없는 일 아니겠냐. 지놈들도 눈깔이 제대로 박힌 인간들일 것인데…… 사정을 해 오면 나도 똑같이 사정을 했더니라. 늙은이도 사람인데 나라고 어디 좋은 집으로 손봐 살고 싶은 맘이 없었소. 맘으로 야 천 번 만 번 우리도 남들같이 기와도 입히고 기둥도 갈아 내고 하고는 싶지만 이 집 꼴을 좀 들여다보시오 들. 이 오막살이 흙집 꼴에다 어디 기와를 엮고 말 것이 있겠소…….”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몇 번 더 발길을 스쳐 가더니 그 담엔 흐지부지 말이 없더라. 지놈들도 이 집 꼴을 보면 사정을 모

를 청맹과니들이더라냐?”

노인은 그 거칠고 굵은 엄지손가락 끝으로 뜨거운 장죽 끝을 꼭꼭 눌러 대고 있었다.

“그 친구들 아마 이 동네를 백 퍼센트 지붕 개량으로 모범 마을을 만들고 싶어 그랬던 모양이구만요.”

나는 이제 그만 기분이 씩씩해져 그런 식으로 슬쩍 이야기를 얼버무려 넘기려 하였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결정적인 실수**(노인과의 이야기를 끝맺으려 했으나 오히려 노인의 지붕 개량에 대한 본심이 나오게 함.)였다.

[ “하기사 그 사람들도 그런 소리들을 하더라. 오늘 밤일을 하는 저 집을 끝내고 나면 이 동네서 인제 지붕 개량을 안 한 집은 우리하고 저 아랫동네 순심이네 두 집밖에 안 남는다니 말이다.” ]( [ ]: 우회적으로 자기의 소망을 제시하는 노인)

“그래도 동네 듣기 좋은 모범 마을 만들자고 이런 집에까지 꼭 기와를 얹으라 하겠어요.”

“글쎄 말이다. 차라리 지붕에 기와나 도당만 얹으셨으면 우리도 두 눈 딱 감고 한번 저질러 보고 싶기도 하더라마는, **이런 집은 아예 터부터 성주를 다시 할 집이라 그렇게……**.(단순한 지붕 개량이 아니라 집을 번듯하게 다시 짓고 싶다는 소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냄.)”

모범 마을이 꼬투리가 되어 이야기가 다시 엉뚱한 곳으로 번지고 있었다. 나는 비로소 다시 가슴이 섬찟해 왔다. 하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고 말았다.

“하기사 말이 쉬운 지붕 개량이지 알숙은 실상 **새 성주를 하는 집도 여러 집 된다**.(소망을 간접적으로 제시 함.)”

한번 이야기를 꺼낸 노인이 거기서부터는 새삼 마을 사정을 소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지붕 개량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 사실 융통성이 꽤나 많은 일이었다. 원칙은 그저 초가지붕을 벗기고 기와나 도당을 얹는 것이었지만, 기와의 하중을 견뎌 내기 위해선 기둥을 몇 개쯤성한 것으로 갈아 넣어야 할 집들이 허다했다. 그걸 구실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주를 새로 하듯 집들을 터부터 고쳐 지어 버렸다. 노인에게도 물론 그런 권유가 여러 번 들어왔다. 기둥이 허술해서 기와를 못 얹는다는 건 구실일 뿐이었다. 허술한 기둥을 구실로 끝끝내 기와 얹기를 미뤄 온 집이 세 가구가 있었는데, 이날 밤에 또 한 집이 새 성주를 위해 밤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인이 기와 얹기를 단념한 것은 집 기둥이 너무 허해서가 아니었다. 노인은 새 성주가 겁이 나 일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허술한 기둥만 믿을 수는 없었다.

일은 아직도 낙관할 수 없었다. 나는 불시에 다시 그 노인에 대한 나의 빗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도 거기서 한동안은 그저 꺼져 가는 장죽 불에만 신경을 쏟고 있는 기색이었다. 하더니 이윽고는 더 이상 소망을 숨기기가 어려운 듯 가는 한숨기를 삼켰다. 그러고는 그 한숨기 끝에 무심결인 듯 덧붙여 왔다.

**“이참에 웬만하면 우리도 여기다 방 한 칸쯤이나 더 늘려 내고 지붕도 도당으로 얹어 버리면 싶긴 하더라만…….”**(지붕을 고칠 뿐만 아니라 집을 다시 지어 방 한 칸쯤 더 늘리고 싶어 하는 노인의 본심이 직접적으로 드러남. 평소 아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기를 싫어하는 ‘노인’이 집을 다시 짓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나’는 이것을 알고 불편해한다는 울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당신의 소망을 내비친 것이었다.

“오늘 당할지 널 당할지 모를 일이긴 하다만, 날짐승만도 못한 목숨이 이리 모질기만 하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구나. **저런 옷케 하나도 간수할 곳이 없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다 보면**(비좁은 집 때문에 물건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어떤 땐 그저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갈아지기도 하고…….”

노인은 결국 그런 식으로 당신의 소망을 분명히 해버리고 만 셈이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소망을 지녔던 것만은 분명히 한 것이다.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었다. 눈을 감은 채 듣고만 있었다. **노인에 대해선 빛이 없음을 골백번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집을 새로 짓고 싶어 하는 노인의 소망을 알아차리고 부담을 느껴 다시 한번 노인에게 빛이 없음을 강조함. 어머니의 소망을 알게 된 후, 애써 외면하며 자신의 매정한 태도를 정당화하려 함.)

“이번에는 면에서도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 주더라도 내년엔 또 이번처럼 어떻게 잠잠해 주거나 할는지. 하

기사 면 사람들 무서워 집을 고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늙은이 냄새가 싫어 그런지 그래도 한 데서 등짝 붙이고 누울 만한 방 놔두고 밤마다 남의 집으로 잠자릴 얻어 다니는 저것들 예미 꼴도 모른 체하지는 못 할 일 이더니라.”

내가 아예 대꾸를 얹으니까 노인은 이제 혼잣말 비슷한 푸념을 계속했다. 듣다 보니 노인의 머릿속엔 이미 꽤 구체적인 계획표까지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나라에서 보조금을 5만 원이나 내주겠다, 일을 일단 저지르고 들었더라면 큰돈이야 얼마나 더 들 일이 있었을라더냐……. 남정네가 없어 남들처럼 일손을 구하기가 쉽진 않았겠지만, 네 형수가 여름 한철만 받을 매 주기로 했으면 건넛집 용석이 아베라도 그냥 모른 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흙일을 돌볼 사람은 그 용석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기동을 갈아 낼 나무 가대는 이장네 산에서 헐값으로 몇 개 부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였다.

**노인의 장죽 끝에는 이제 불기가 꺼져 식어 있었다.**(꺼져 가는 노인의 소망이 비유적으로 나타남.)

노인은 **연신 그 불이 꺼진 장죽을 빨아 대며,**(소망을 살리고 싶은 노인의 모습이 비유적으로 나타남.) 예의 면 보조금 5만 원과 이웃 도움이 아까워서라도 일을 단념하기가 아쉬웠다는 투였다.

하지만 노인은 그러면서도 끝끝내 내게 대한 주장이나 원망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의 형식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로써 그런 생각을 해 봤을 뿐이고, 그럴 뻔했다는 말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선 어떤 형식으로도 직접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는 식이었다. 말하는 목소리도 끝끝내 그 체념기가 짙은 특유의 침착성을 잃지 않은 채였다. ]([ ]: 노인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나’의 생각이 드러남. ‘나’는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마음속 빛이 없음을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다. 세상일이 그렇게 맘 같이만 된다면야 나이 먹고 늙은 걸 설워 안 할 사람이 있을라더냐. 나이를 먹으면 애기가 된다더니 이게 다 나이 먹고 늙어 가는 노망기 한가지제.”

**종당에는 그 은밀스런 당신의 소망조차 당신 자신의 실없는 노망기 탓으로 돌려 버리고 있었다.**(어젯밤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부분의 끝)

하지만 나는 이제 **노인의 내심**(집을 다시 짓고 싶어 하는 노인의 소망)을 못 알아볼 리 없었다. 한마디 말참견도 없이 눈을 감고 잠이 든 척 잠잠히 누워만 있던 아내까지도 그것을 분명히 눈치채고 있었다.

“당신, 어젯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응대해 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 아내는 마당가로 세숫물을 떠 들고 나왔다가 낮은 소리로 추궁을 해 왔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그저 쓸데없는 참견 말라는 듯 **눈매를 잔뜩 깎아 떠 보였었다.**(현재 상황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 하니 아내가 그러는 나를 차라리 경멸조로 나무랐다.

“당신은 참 엉뚱한 데서 득해요. 늙은 노인네가 가없지도 않으세요. 말씀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예요.”

아내도 분명 노인의 말뜻을 알아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노인의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어른에 대한 공경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 아내의 역할 - 어머니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수단,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 **아내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정서를 매개하며 어머니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인물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내 속마음도 속속들이 모두 읽고 있는 게 당연했다. **내일 아침으로 서둘러 서울로 되돌아가겠노라는 나의 결정**(‘나’는 노인의 소망에 대해 부담을 느껴 서울로 서둘러 돌아가려 함.)에 아내가 은근히 분개하고 나선 것도 그런 사연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다고 그들 무슨 뽀족한 수가 있을 수가 있는가.

어쨌든 노인이 이제라도 그 집을 새로 짓고 싶어 하고 있는 건 분명했다. [ 아무래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노인들은 모두 어린애가 되어 가는 것일까.**(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망을 드러낸 어머니를 노망기로 치부하며 합리화함.) 노인이 정말로 내게 빛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인가. 노인의 말처럼 그건 일테면 노망기가 분명했다. 그런 염치도 못 가릴 정도로 노인은 그렇게 늙어 버린 것이었다. ]([ ]: 새로 집을 짓고 싶어 하는 노인을 탓함.) 하지만 나는 굳이 노인의 그런 노망기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문제는 서로 간의 빛의 문제였다. 노인에 대해 빛이 없다는 사실만이 내게는 중요했다. 염치가 없어져서건

노망을 해서건 **노인에 대해 내가 갇아야 할 빛만 없으면 그만이었다.**(노인에 대한 빛이 없음을 반복함. 매정한 ‘나’의 성격을 보여 줌. ‘나’가 노인에게 빛이 없음을 강조하며 매정한 성격이 드러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빛이 있을 리 없지. 절대로! 글썸 노인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정면으로는 말을 꺼내지 못하질 않던가 말이다.

어디선가 무덤고 게으른 **매미 울음소리**(답답하고 괴로운 ‘나’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냄.)가 들렸다.

나는 비로소 마음을 굳힌 듯 오리나무 그늘에서 몸을 힘차게 일으켜 세웠다. 콩밭 아래로 흘러 뺨은 마을이 눈앞으로 멀리 펼쳐져 나갔다. 거기 과연 아직 초가지붕을 이고 있는 건 노인네의 버섯 모양 오두막과 아랫동네의 다른 한 채가 전부였다.

—빌어먹을! 그 지붕 개량 사업인지 뭘지 하필 이런 때 법석들일구?

아무래도 심기가 편할 수는 없었다. **나는 공연히 그 지붕 개량 사업 쪽에다 애꿎은 저주를 보내고 있었다.**(‘나’는 노인의 소망을 알고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3

<위기>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내의 연이은 질문으로 어머니가 **죽음에 대비하고자 집을 개량하고 싶어 했음**(방이 하나밖에 없어 자기가 죽고 난 뒤 자기의 시신과 문상 온 사람이 같이 계속 있어야 함을 걱정함.)을 알게 된다.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가 어머니의 **옛집에 대한 기억 회상으로 이어지자 ‘나’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옛집에 대한 기억이 ‘나’에게 노인에 대한 빛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임.)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어 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 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 **옷궤**(과거의 집과 현재의 집을 연결하는 소재, 과거의 집과 관련된 기억을 회상하게 하는 소재. ‘나’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이자 부채감을 주는 대상.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깃든 대상) 이야기였다. **17, 1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과거 회상의 시작)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형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함. 형의 방탕한 생활로 집안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K시에서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나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엘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 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마을 사람들의 동정의 시선을 받기 싫어 늦은 시간에 집을 찾음.)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들고 온 대로였다.**(식구들을 만날 기대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새벽에 고향 집을 찾았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집은 텅텅 빈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가세가 기울어 가족이 흩어짐. 가족 관계의 파탄)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 간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에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데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집안이 몰락했다는 사실을 알면 위축될까 봐 ‘나’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음.)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집이 팔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 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 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팔린 집에서 아들이 하루라도 보낼 수 있도록 한 노인의 노력을 알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

까지는 하룻밤만이라도 내게 옛집의 모습과 옛날 같은 분위기 속에 맘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해 주고 싶어서(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과 배려, 사랑)였을 터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썰렁한 집안 분위기가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건만.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 온 흔적(노인에게 옷궤의 의미 ① 옛집의 상징)으로 안방 한쪽에 이불 한 채와 옷궤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 두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서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 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옷궤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내(노인에게 옷궤의 의미 ② 과거의 분위기를 환기함. '노인'에게 옷궤의 의미는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내는 상징적인 물건이자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물건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노인에게 옷궤의 의미 ③ '나'와 노인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줌.)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었다.

그런 내력이 숨겨져 온 옷궤(노인에 대한 '나'의 빛을 떠올리게 하고 '나'에게 부담감을 주는 소재)였다.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노인에게 옷궤의 의미 ④ 마지막 자존심)해 온 옷궤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 온 물건('나'에게 옷궤의 의미 ①)이었다. 노인에게 빛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지내다가도 그 옷궤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빛 문서(노인에게 빛이 없음을 되새겨 온 '나'에게 빛(값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느껴짐.)를 만난 듯 기분이 꺼림칙스러워지곤 하던 물건('나'에게 옷궤의 의미 ②. '나'에게 옷궤의 의미는 언제나 불편스럽고 마음에 걸려 방해하던 물건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이었다.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노인의 방에 들어선 순간에 벌써 기분을 불편스럽게 해 오던 옷궤('나'에게 옷궤의 의미 ③)였다. 그리고 끝내는 이틀 밤을 못 넘기고 길을 다시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도 알고 보면 바로 그 옷궤의 허물이 컸을지 모른다.

아내도 물론 그 옷궤('나'와 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물건이자 둘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매개물)에 관한 내력을 내게서 들을 만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여자라면 그 옷궤에 대한 내 기분도 짐작을 못 할 그녀가 아니었다. 아내는 일부러 그 옷궤 이야기를 꺼냈음이 분명했다.(노인을 매몰차게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내는 '나'를 의식하면서 노인과의 대화를 이끌어 감을 짐작할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더욱이 내가 바깥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걸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

나는 어느새 콧속을 후벼 대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묵은 빛 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나'는 노인이 추억을 언급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칠까 걱정함.) 노인이 치사하게 그 묵은 빛 문서(아직까지 갚지 않은, 갚아야 할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함. '나'의 심리적 부채 의식)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덤빌 수도 있었다.

—그래 보라지. 누가 뭐래도 내겐 절대로 빛진 게 없으니까. 그래 본들 없는 빛이 생길 리가 있을라구. 나는 거의 기구를 드리듯 눈을 감고 기다렸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그 무심스러워 보이기만 한 노인의 대꾸였다.

“옷궤를 내놓으면 몸에 걸칠 옷가지는 다 어디다 간수하고야? 어디다 따로 내놓을 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어디다 내놓을 데가 생긴다고 해도 그것 말고는 옷가지 나부랑일구 간수해 둘 데가 있어알 것 아니냐.”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노인이 그 옷궤 쪽에는 그리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옷이야 어떻게 못을 박아 걸더라도, 사람이 우선 좀 발이라도 뽀고 누울 자리가 있어야잖아요. 이걸 뭐 사람보다도 옷장을 모시는 꼴이지 뭐예요.”

아내는 거의 역지를 부리고 있었다. 옷궤에 대한 노인의 집착심을 시험해 보기 위한 수작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노인의 반응은 여전히 의연했다.

“그건 네가 모르는 소리다. 그 옷궤라도 하나 없으면 이 집을 누가 사람 사는 집이라 할 수 있겠냐. 사람 사는 집 흔적으로 해서라도 그건 집안에 지녀야 할 물건(옷궤가 몰락하기 전 집안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노인)이다.”

“**어머님은 아마 저 옷장에 그럴 만한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아내는 옷장에 대한 내력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물어봄. ‘나’와 노인의 화해를 바람.) 시집오실 때 해 오신 건가요?”

노인의 나이가 너무 높다 보니 아내는 때로 그 노인 앞에 손주딸처럼 버릇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순제 장난기 한가지였다.

“내력은 무슨…….”

노인은 이제 그것으로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옷케 이야기는 더 이상 들추고 싶지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 쪽도 그쯤 호락호락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다. 노인이 입을 다물어 버리자 아내도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침묵을 지키고 있더니, 이윽고 다시 **새판잡이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남편과 시어머니의 화해를 위해 끈질기게 대화를 시도하는 아내의 적극적 태도가 나타남. **아내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감정을 자극해서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극적인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하긴 어쨌거나 어머님 마음이 편하진 못하시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옛날 사시던 집을 지켜 오시는 게 제일 좋으셨을 텐데 말씀예요. **도대체 그 집은 어떻게 해서 팔리게 되었어요?**(노인에게 ‘나’와 얽힌 과거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함. → 아내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

다시 그 집 얘기였다. 그 역시 모르고 묻는 소리가 아니었다. 아내는 그 옷케의 내력과 함께 집이 팔리게 된 사정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었다. 하면서도 그녀는 다시 노인에게 그것을 되풀이시키려 하고 있었다.

옷케를 구실로 그 노인의 소망을 유인해 내려는 그녀 나름의 노력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태도도 아직은 그 아내 못지않게 끈질긴 데가 있었다.

“**집이 어떻게 팔리기는……. 안 팔아도 좋을 집을 뉘 장난삼아 팔았을라더냐. 내 집 지니고 살 팔자가 못 돼 그리 된 거제…….**(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집을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탄식. 집을 지키지 못한 것을 자신의 운명 탓으로 돌리는 체념의 태도가 나타남.)”

알고도 묻는 소릴 노인은 또 노인대로 내력을 얼버무려 넘기려고 하였다.

“그래도 사정은 있었을 거 아녜요? 그 집을 지을 때 돌아가신 아버님이 몹시 고생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집이야 참 어렵게 장만한 집이었지야. 남같이 한 번에 지어 올린 집이 아니고 몇 해에 걸쳐서 한 칸씩 두 칸씩 살림 형편 좇아서 늘려 간 집이었더니라. 그렇게 마련한 집이 결국은 내 집이 못 되고……. 그러다고 **이제 그런 소린 해서 뭇을 하겠냐. 어차피 내 집이 못 될 운수라 그리 된 일을 이런 소리 곱씹는다고 팔려 간 집 다시 내 집이 되어 돌아올 것도 아니고…….**(집에 대한 이야기가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더는 말하지 않으려 함.)”

“하지만 그리 어렵게 장만한 집이라 애석한 생각이 더할 게 아녜요. 지금 형편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되어 그리 되고 말았는지 그때 사정이라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만둬라.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제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기억도 많이 희미해진 일이고…….”

한사코 이야기를 피하려는 노인에게 아내는 마침내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좋아요. 어머님께선 아마 지난 일로 저까지 공연히 속을 상하게 할까 봐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그래도 별 소용이 없으세요. 저도 사실은 이야기를 대강 다 들어 알고 있단 말씀예요.”

“이야기를 들어? 누구한테서?”

**노인이 비로소 조금 놀라는 기미**(아들에게서 과거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에 놀람.)였다.

“그야 물론 저 사람한테지요.”

노인의 물음에 아내가 대답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밖에서 엿듣고 있는 나를 지목한 말투가 분명했다. 짐작대로 그녀는 벌써부터 내가 밖에서 엿듣고 있는 낚새를 알아차리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집을 팔게 된 사정만도 아니예요. 어머님께서 저 사람한테 그 팔려 간 집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 주신 일도 모두 알고 있단 말씀예요. 모른 척하고 있기는 했지만 저 옷장 말씀예요. 그날 밤에도 어머님은 저 헛 옷장 하나를 집 안에다 아직 남겨 두고 계셨더라면서요. 아직도 저 사람한테 어머님이 거기서 살고 계신 것처럼 보이시려고 말씀이에요.”

**아내는 차츰 목소리가 떨려 나오고 있었다.**(노인과 '나'의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노인의 이야기를 유도하며 울컥함.)

“그렇담 어머니, 이제 좀 속 시원히 말씀해 보세요. 혼자서 참아 넘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말씀이라도 하셔서 속을 후련히 털어놔 보시란 말씀이에요. 저흰 어머니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한테까지 어머니는 어째서 그렇게 말씀을 참아 넘기려고만 하세요.”

아내의 어조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노인도 이젠 어찌할 수가 없는지, 한동안 묵묵히 대꾸가 없었다.

나는 온통 입안의 침이 다 말랐다. 노인의 대꾸가 어떻게 나올지 숨도 못 쉴 채 당신의 다음 말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내나 나의 조바심과는 아랑곳없이 노인은 끝내 심기를 흐트리지 않았다.

**“그래 그 아그(아이)도 어떻게 아직 그날 밤 일을 잊지 않고 있더냐?”**(그때의 일을 아들이 기억하길 바라고 있었음. 아들이 과거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가움)

“그래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저 사람이 집을 못 들어가고 서성대고 있으려니까 그 집이 아직 안 팔린 것처럼 저 사람을 안으로 데려다가 저녁까지 한 끼 지어 먹이셨다면서요?”

**“그럼 됐구나.**(자신의 사랑을 아들이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노인) 그렇게 죄다 알고 있는 일을 뭐 하러 한 사코 나한테 되뇌게 하려느냐.”

“저 사람은 벌써 잊어 가고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선 진짜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요. **사람이 모질어 저 사람은 그런 일 일부러 잊어요.**(어머니의 사랑과 배려를 모른 채하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담김. 남편이 어머니의 사랑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음을 꼬집는 아내의 말) 그래 이번엔 어머니한테서 진짜 이야길 듣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얘기 말고 어머니의 그날 밤 진짜 심경을 말씀이에요.”

“심경이나마나 저하고 별다른 대목이 있었을라더냐. 사세부득해서 팔았다곤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내 발길이 끊이지 않은 집인데, 그 집을 놔 두고 그 아그가 그래 발길을 주춤주춤 어정대고 서 있더구나…….”

아내의 성화를 견디다 못해 노인은 결국 마지못한 어조로 그날 밤 일을 얼핏 돌이키고 들었다. 어조에는 아직도 그날 밤의 심사가 조금도 실려 있지 않은 채였다.

“그래 저를 나무래서 냉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니라. 그리고 더운밥 지어 먹여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 가지고 동도 트기 전에 길을 되돌려 떠나보냈더니라…….”

**“그래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어요?”**(‘나’가 어머니의 속마음을 듣게 하려고 계속 질문함.)

[ “마음이 어찌기는야. 팔린 집이나마 거기서 하룻밤 저 아그를 재워 보내고 싶어 싶은 골목 드나들며 마당도 쓸고 걸레질도 훑치며 기다려 온 에미였는데, **더운밥 해 먹이고 하룻밤을 재우고 나니 그만만 해도 한 소원은 우선 풀린 것 같더구나.**(자식을 위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함.) ” ]([ ]: 의기소침할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랑)

“그래 어머니는 흡족한 기분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셨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정말로 그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 어머니는 정말로 그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실 수 있으셨을까 말씀이에요. 아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였다 치더라도 어머니 자신은 그때 변변한 거처 하나 마련해 두시지 못하셨을 처지에 말씀이에요. ]([ ]: 아들은 옛집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보냈지만 이후 집이 없었을 노인의 상황과 심정을 알고 싶어 함.)”

“나더러 또 무슨 이야길 더 하라는 것이냐.”

[ “그때 아들을 떠나보내실 때 어머니 심경을 듣고 싶어요. 객지 공부 가는 어린 아들을 그런 식으로 떠나보내시면서 어머니 자신도 거처가 없이 떠도셔야 했던 그때 처지에서 어머니가 겪으신 심경을 말씀해요.” ]([ ]: 직접적으로 그날 밤의 어머니의 심경을 물음.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을 말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김.)

“그만두거라. 다 쓸데없는 노릇이니라. 이야기를 한들 그때 마음이야 네가 어찌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겠냐.”

노인이 다시 이야기를 사양했다. 그러나 그 체념기가 완전한 노인의 어조에는 아직도 혼자 당신의 맘속으로만 지녀 온 어떤 이야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내 기미를 눈치채고 있었다 하더라도 노인만은 아직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 [ 노인의 말을 그쯤에서 중단시켜야 했다. 아내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게까지 그

것을 알게 하고 싶지는 않을 노인이었다. 내 앞에선 더 이상 노인의 이야기가 계속되어 갈 수 없었다. ]([ ]: 과거의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나', 그러면서 노인도 불편해할 것이라 추측함.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아내'와 '노인'을 외면하는 '나'의 부정적 태도에 대한 원망을 나타낸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나는 이윽고 헛기침을 한 번 하고서**(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듣다가는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대화를 중단시키려 함.) 그 노인의 눈길에 닿고 있는 장지문 앞으로 모습을 불쑥 드러내고 나섰다.

4

<절정> **위험한 고비**(어머니의 말로 인해 '빛'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나'의 부담감을 나타냄.)는 그럭저럭 모두 지나가고 있었다.

저녁상을 들일 때 노인은 언제나처럼 막걸리 한 되를 가져오게 하였다. 형의 술버릇 때문에 집안 꼴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노인은 웬일로 내게 그리 술 걱정을 하지 않았다. 집에만 가면 당신이 손수 막걸리 한두 되씩을 꼭꼭 미리 마련해다 주곤 하였다.

—한잔 마시고 잠이나 자거라.

그러면서 낮참부터 늘 잠자기를 권했다.

이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정 내일 아침으로 길을 나설라냐?”**(아들이 빨리 올라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남.)

저녁상이 들어왔을 때 노인은 그렇게 조심스런 목소리로 나의 내심을 한 번 더 떠왔을 뿐이다.

“가야 할 일이 있으니까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노인에게 공연히 짜증기 선 목소리로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하니까 노인은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그래 알았다. 저녁하고 술이나 한잔하고 일찍 쉬거라.”

아침부터 먼 길을 나서려면 잠이라도 일찍 자 두라는 단속이었다. 나는 말없이 노인을 따랐다. 저녁 겸해서 술 한 되를 비우고 그리고 술기를 못 건디는 사람처럼 일찌감치 잠자리를 펴고 누웠다. 이윽고 형수님이 조카들을 데리고 잠자리를 찾아 나가자 이날 밤도 우리는 세 사람 합숙이었다.

어쨌거나 이제 위태로운 고비는 그럭저럭 거의 다 넘겨 가고 있는 셈이었다. 눈을 붙였다 깨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건 끝난다. 지붕이고 옷궤고 더 이상 신경을 쓸 일이 없어진다. 노인에게 숨겨진 빛 문서가 있을까. 하지만 이날 밤만 무사히 넘기고 나면 노인의 빛 문서도 그걸로 영영 휴지가 되는 것이다.

—잠이나 자자. **빛이고 뭐고 잠들면 그만이다. 노인에게 빛은 내가 무슨 빛이 있단 말인가…….**(빛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계속 빛을 신경 쓰는 '나')

나는 제법 흥가분한 기분으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술기 탓인지 알알한 잠기운이 이내 눈꺼풀을 덮어왔다.

한데 얼마쯤 그렇게 아늑한 졸음기 속을 헤매고 났을 때였을까. 나는 웬일인지 문득 다시 잠기가 서서히 얽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어렵קות한 선잠기 속에 도란도란 조심스런 **노인의 말소리**(아내가 궁금해하던 과거 이야기(과거 '나'를 보내고 난 뒤 노인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노인')가 들려왔다.

[ “그날 밤사말로 갑자기 웬 눈이 그리 많이 내렸던지 잠을 잤으면 얼마나 잤겠느냐마는 그래도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바깥이 원통 환한 눈 천지로구나……. 눈이 왔더라도 어쩔 수가 있더냐. 서둘러 밥 한술씩을 끓여다가 속을 덥히고 그 눈길을 서둘러 나섰더니라……” ]([ ]: 눈길을 함께 걸으며 아들을 보내야 했던 그날 새벽을 회상함. 새벽밥을 준비하여 아들에게 먹이고, 눈길에 아들을 홀로 보내야 했던 그날 새벽을 회상하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정신이 번쩍 들고 말았다.**(‘나’에게도 그날의 일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기억임을 추측할 수 있음.) 어찌 된 일인지 노인이 마침내 그날 밤 이야기를 아내에게 가닥가닥 털어놓고 있는 중이었다.

“처지가 뒹뒹했으면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에 길을 나설 수도 있었으려만, 그땐 어찌도 그리 처지가 **부끄럽고 저주스럽기만 했던지**(그때의 처지와 감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그래 할 수 없이 새벽 눈길을 돌이켜 나

섰지만, 시오 리나 되는 장터 차부까지 산길이 멀기는 또 얼마나 멀더냐.”

**기억을 차근차근 더듬어 나가고 있는 노인의 몽롱한 목소리**(마치 구연되는 옛이야기처럼 서술되어 아늑하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형성함.)는 마치 어린 손주에게 옛이야기라도 들려 주는 할머니의 그것처럼 **아늑한 느낌마저 깃들이고 있었다.**(슬프고 아픈 기억이지만 아들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기억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 슬프고 아픈 기억이지만 아들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기억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아내가 결국은 노인을 거기까지 유도해 냈음이 분명했다.

—이야기를 한들 내가 어찌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겠냐…….

낮결에 노인이 말꼬리를 한 가닥 깔고 남은 기미를 아내가 무심히 들어 넘겼을 리 없었다.

그날 밤 아니—그날 새벽—아내에겐 한 번도 들려준 일이 없는 **그날 새벽의 서글픈 동행**(그날의 기억에 대한 나의 느낌을 단적으로 드러냄.)을, **나 자신도 한사코 기억의 피안으로 사라져 주기를 바라 오던 그 새벽의 눈길의 기억**(‘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기억)을 노인은 이제 받아 낼 길 없는 묵은 빛 문서를 들추듯 허무한 목소리로 되씹고 있었다.(혼자 남은 노인의 처지가 ‘나’에게는 빛이 되기 때문이었고, ‘노인’은 굳이 ‘나’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과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날은 아직 어둡고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차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대어 갈 수가 있었구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의 머릿속에도 마침내 그날의 정경이 손에 닿을 듯 역력히 떠올랐다. 어린 자식 놈의 처지가 너무도 딱해서였을까. **아니 어쩌면 노인 자신의 처지까지도 그 밖엔 달리 도리가 없었을 노릇이었는지도 모른다.**(어머니가 ‘나’를 바라다준 이유에 대한 ‘나’의 추측. 더 이상 머물 집도 없는 상황이라 어머니가 ‘나’를 배웅하러 따라나설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함.) 동구 밖까지만 바라다 주겠다면 노인은 다시 마을 뒷산 잣길까지 나를 좀 더 바라 주마 우겼고, 그 잣길을 올라선 **다음엔 새 신작로가 나설 때까지만 산길을 함께 넘어가자 우겼다.**(조금이라도 더 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심정) 그럴 때마다 한 차례씩 애시린 실랑이를 치르고 나면 노인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수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동네를 나서는 건 노인이나 나나 생각을 안 했다. 그나마 그 어둠을 타고 마을을 나서는 것이 노인이나 나나 마음이 편했다. 노인의 말마따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미끄러지면 노인이 나를 부축해 일으키고, 노인이 넘어지면 내가 당신을 부축**(애뜻한 모자 관계)해 가면서, 그렇게 말없이 신작로까지 나셨다. 그러고도 아직 면소 차부까지는 길이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면소 차부까지도 노인과 함께 신작로를 걸었다.

아직도 날이 밝기 전이었다.

하지만 그러고 **우리**(‘나’와 ‘노인’이 아닌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는 어찌 되었던가.

**나는 차를 타고 떠나갔고, 노인은 거기서 다시 어둠 속의 눈길을 되돌아시켜야 했다…….**(이후의 상황은 ‘나’가 알지 못했던 ‘부재의 이야기’로, 어머니의 희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임.)

내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뿐이었다.

노인이 그 후 어떻게 길을 되돌아갔는지는 나로서도 아직 들은 바가 없었다.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 두고 차로 올라선 그 순간부터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하기가 싫었고, 노인도 오늘까지 **그날의 뒷얘기는 들려준 일이 없었다.**(‘나는 차를 타고 떠난 뒤 혼자 남은 노인의 상황과 심정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웬일로 오늘사 그날의 기억을 끝까지 돌이키고 있었다.

“어떻게 어떻게 장터거리로 들어서서 차부가 저만큼 보일 만한 데까지 가니 그때 마침 차가 미리 불을 켜고 차부를 나오더구나. 급한 김에 내가 손을 휘저어 그 차를 세웠더니, 그래 그 운전사란 사람들은 어찌 그리 길이 급하고 매정하기만 한 사람들이더냐. 차를 미처 세우지도 덜하고 덜크렁덜크렁 눈깜짝할 사이에 저 아그를 훌쩍 실어 담고 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히 입을 다문 채 듣고만 있던 아내가 모처럼 한마디 끼어들었다.

**나는 갑자기 다시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졌다.**(혼자 남은 노인에 대한 미안함. 그동안 외면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확

인하게 될 것에서 느끼는 두려움. 그동안 외면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이야기를 가로막고 싶었다. 하지만 [ 나는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온몸이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몸을 어떻게 움직여 볼 수가 없었다.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같은 것이 나를 아늑히 감싸 오고 있었다. ]([ : 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기고 깨달아 가고 있음. 역설적 표현이 나타남. 역설적 표현을 통해 '노인'의 사랑을 깨달은 '나'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는야. 녀이 나간 사람마냥 어둠 속에 한참이나 찾길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야……. 그 **허망한 마음**(아들을 떠나보낸 뒤 외롭고 허무한 마음)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을 거나…….”

노인은 여전히 옛얘기를 하듯 하는 그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돌아오더구나. **정신이 들어 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스럽지 않았구나.**(아들과 함께 걸었던 길을 혼자 걸어야 하는 외롭고 허망한 마음) 지금까지도 그래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 함께 헤쳐 온 길인데 이참에는 그 길을 늙은 것 혼자서 되돌아서려니……. 거기다 아직도 날은 어둡지야……. 그대로는 암만 해도 길을 되돌아설 수가 없어 차부를 찾아 들어갔더니. 한 식경이나 차부 안 나무 걸상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려니 그제사 동녘 하늘이 흰해져 오더구나…….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을 서둘러 나섰는데, 그때 일만은 언제까지도 잊힐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어머니의 험난한 인생길)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구나. 눈발이 그친 그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 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 “간절하다뿐이었구나.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소재 ①)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듯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소재 ②)만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아그 녀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소재 ③)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 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그 외지기만 한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함께 살아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 : 아들에 대한 그리움, 자책감. 떠난 아들을 대상에 비유함으로써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간절한 그리움을 실감 나게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나'와 '노인'이 함께 헤쳐 나갔던 '눈길'을 '노인'이 홀로 되돌아오는 장면은 마치 '노인'이 앞으로 홀로 견뎌 나가야 할 삶의 시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옳은 감상이 출제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 “울기만 했겠다. 오목오목 디더 눈 저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밟고 왔제…….” ]([ : 자식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 주지 못한 어머니의 애틍한 마음. 자식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머니의 애틍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옳은 감상이 출제되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거진 끝이 나 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그런디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렇저령 시름없이 걸어 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뒷산까지 당도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길로는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어**(부모로서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감을 느낌. 아들을 데려다주고 스스로 돌아갈 곳이 없어서 서러웠을 것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잿등 위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거니…….”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을 채근하고 나섰다.

그 목소리가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어머니를 헤아리지 못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노인의 말을 막고 싶음.)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나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말>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나'의 부끄러움과 죄책감. '불빛' 앞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며 죄책감을 느낀다는 옳은 감상이 출제되었습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어머니의 사랑을 외면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부끄러움과 반성의 눈물)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어머니에 대한 '나'의 생각의 변화를 보여 줌. 노인에게 매정하게 대했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 '나'는 무정한 태도로 일관하다 뒤늦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이젠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 보세요.”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며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꼭꼭 눌러 참으며 내쳐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노인뿐이었다.

“가만두거라. 아침 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데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 뭇 하러 그러냐.”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 두고 나서 아직도 그 옛 얘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그런디 **이것**(돌아갈 처가 없어서 동네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생각)만은 네가 좀 잘못 안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잣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깃들일 데 마련이 안 됐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자식과 집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부끄러움과 슬픔, 한스러움)이 활짝 퍼져 들어 있는데,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창인데 그렇게 시린 눈을 해 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져서**(부모로서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자책감, 서글픔과 미안한 마음. '햇살' 아래에서 자식과 집안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 대한 자책감을 느낀다는 옳은 감상이 출제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외면하고자 했던 '나'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옳은 감상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 《문예중앙》 1977. 겨울 호

고1  
공통국어1  
해냄

2027 고1 공통국어1 해냄 | 2(2) 눈길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눈길>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순수 소설, <b>귀향</b> 소설
성격	<b>회고적</b> , <b>상징적</b> , 서정적
시점	<b>1인칭</b> 주인공 시점
배경	1970년대 여름(현재), 어느 <b>겨울</b> (과거 회상) / 시골 고향집
제재	아들과 어머니의 <b>갈등</b> 과 <b>화해</b>
주제	<b>어머니</b> 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b>깨달음</b> 과 인간적 <b>화해</b>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상과 대화를 통해 과거의 사실을 드러내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함.</li> <li>• 상징적 의미를 가진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li> <li>•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으며 열린 결말 구조를 지님.</li> </ul>

2. <눈길>을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하기

오늘 점심	'나'가 내일 아침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말함.
어젯밤	어머니가 <b>지붕 개량 사업</b> 을 통해 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냄. '나'는 이로 인해 심기가 불편해짐.
오늘 오후	아내가 어머니에게서 옛집과 <b>옷궤</b> 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내며 '나'와 어머니의 <b>화해</b> 를 시도함.
오늘 저녁, 밤	어머니가 '그날 새벽'의 <b>눈길</b> 에 대한 이야기를 함. '나'가 어머니의 깊은 <b>사랑</b> 을 깨달음.

3. <눈길>의 구조

발단	고향집에 온 '나'가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아쉬워하지만 곧 <b>체념</b> 함.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인해 집이 몰락한 후 어머니와 '나'는 서로 주고받은 것 없이 살아왔기에 '나'는 어머니에게 진 <b>빚</b>이 <b>없다</b>고 생각함.</li> <li>• 어머니가 집을 고치고 싶다는 <b>소망</b>을 드러내자 '나'는 이를 <b>외면</b>함.</li> </ul>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태도가 못마땅한 <b>아내</b>는 어머니에게 옛집에 관한 과거 이야기를 <b>이끌어 내고</b>, '나'는 <b>옛집</b>에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지냈던 <b>날</b>을 떠올림.</li> </ul>
절정	'나'가 자신이 떠난 뒤 <b>홀로 눈길</b> 을 되 돌아오던 날 <b>어머니</b> 의 <b>이야기</b> 를 듣게 됨.
결말	어머니의 <b>사랑</b> 을 깨달은 '나'가 <b>눈물</b> 을 흘림.

4. '옷궤'의 의미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잊고 싶은 과거</b>를 떠오르게 하는 물건.</li> <li>• 노인에 대한 '나'의 <b>빚</b>(값을 길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b>연상</b>하게 하여 <b>불편함</b>을 주는 물건.</li> </ul>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들에 대한 <b>배려</b>와 <b>사랑</b></li> <li>• 과거 집안이 <b>온전</b>했을 때의 기억을 <b>환기</b>시키는 물건</li> <li>•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b>자존심</b></li> </ul>
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와 노인 사이에 있었던 <b>이야기</b>를 이끌어 내는 <b>수단</b></li> <li>• '나'와 노인의 <b>화해</b>의 <b>방법</b>을 찾을 수 있게 하는 <b>소재</b></li> </ul>

5. '눈길'의 상징적 의미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li> <li>집안이 몰락하여 자주성가해야 하는 고난의 삶</li> </ul>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들에 대한 헌신적 사랑</li> <li>혼자서 겪어야 하는 시련</li> <li>몰락한 집안에서 겪어 온 인고의 삶</li> </ul>

6. '불빛'과 '햇살'

불빛	햇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나'의 죄책감	자식과 집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의 자책감

7. <눈길>의 결말 처리 방식

'나'는 자신을 떠나보내고 홀로 눈길을 되돌아온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음. 그러한 '나'가 눈물을 감추기 위해 잠든 척 버티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꺾으로 소설을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남기며 독자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고 있음.

8. <눈길>에 나타난 객관적 상관물

치자나무 한 그루	'나'의 곤혹스러움과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심리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매미 울음소리	답답하고 괴로운 '나'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9. '노인'에 대한 '나'의 태도와 '노인'의 말하기 방식

(1) '노인'에 대한 '나'의 태도

'나'는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칭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냄. 자신과 어머니 사이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따지며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빚이 없다고 하는 '나'의 모습에서도 이를 알 수 있음.

(2) '노인'의 말하기 방식

노인은 지붕 개량 사업을 통해 빚을 다시 짓고 싶어 하는 소망을 드러냄. 하지만 자기 소망으로 인해 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며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음. 이러한 노인의 말하기 방식에서 노인의 아들에 대한 사랑, 사려 깊은 배려심을 알 수 있음.

10. '나'와 노인 사이에서 아내의 역할

- '나'와 노인 사이의 중재자
- 노인으로부터 과거의 이야기를 끌어냄.
- '나'가 노인을 이해하게 함.

TEST 1단계

1. <눈길>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순수 소설, □향 소설
성격	□고적, □징적, 서정적
시점	□인칭 □인공 시점
배경	1970년대 여름(현재), 어느 □울(과거 회상) / 시골 고향집
제재	아들과 어머니의 □등과 □해
주제	□머니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달음과 인간적 □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과 □화를 통해 □거의 사실을 드러내는 □순행적 □성 방식을 취함.</li> <li>□징적 의미를 가진 □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li> <li>분명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으며 □린 □말 □조를 지님.</li> </ul>

2. <눈길>을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하기

오늘 점심	‘나’가 내일 아침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말함.
어젯밤	어머니가 □봉 □량 □업을 통해 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냄. ‘나’는 이로 인해 심기가 불편해짐.
오늘 오후	아내가 어머니에게서 옛집과 □퀘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내며 ‘나’와 어머니의 □해를 시도함.
오늘 저녁, 밤	어머니가 ‘그날 새벽’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함. ‘나’가 어머니의 깊은 □랑을 깨달음.

3. <눈길>의 구조

발단	고향집에 온 ‘나’가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아쉬워하지만 곧 □념함.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인해 집이 몰락한 후 어머니와 ‘나’는 서로 주고받은 것 없이 살아왔기에 ‘나’는 어머니에게 진 □이 □다고 생각함.</li> <li>어머니가 집을 고치고 싶다는 □망을 드러내자 ‘나’는 이를 □면함.</li> </ul>
위기	‘나’의 태도가 못마땅한 □내는 어머니에게 옛집에 관한 과거 이야기를 □끌어 □고, ‘나’는 □집에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지냈던 □을 떠올림.
절정	‘나’가 자신이 떠난 뒤 □로 □길을 되돌아오던 날 □머니의 □야기를 듣게 됨.
결말	어머니의 □랑을 깨달은 ‘나’가 □물을 흘림.

4. ‘웃궤’의 의미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 □은 □거를 떠오르게 하는 물건</li> <li>노인에 대한 ‘나’의 □(값을 길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상하게 하여 □편함을 주는 물건</li> </ul>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들에 대한 □려와 □랑</li> <li>과거 집안이 □전했을 때의 기억을 □기시키는 물건</li> <li>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존심</li> </ul>
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와 노인 사이에 있었던 □야기를 이끌어 내는 □단</li> <li>‘나’와 노인의 □해의 □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재</li> </ul>

5. '눈길'의 상징적 의미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억하고 싶지 <input type="checkbox"/>은 추억</li> <li>집안이 <input type="checkbox"/>락하여 <input type="checkbox"/>수성가해야 하는 <input type="checkbox"/>난의 삶</li> </ul>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들에 대한 <input type="checkbox"/>신적 <input type="checkbox"/>량</li> <li>혼자서 겪어야 하는 <input type="checkbox"/>런</li> <li>몰락한 집안에서 겪어 온 <input type="checkbox"/>고의 <input type="checkbox"/></li> </ul>

6. '불빛'과 '햇살'

불빛	햇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나'의 <input type="checkbox"/> 책감	자식과 집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의 <input type="checkbox"/> 책감

7. <눈길>의 결말 처리 방식

'나'는 자신을 떠나보내고 홀로 눈길을 되돌아온 머니의 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음. 그러한 '나'가 눈물을 감추기 위해 잠든 척 버티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는 으로 소설을 마무리함으로써 운을 남기며 독자에게 상의 지를 주고 있음.

8. <눈길>에 나타난 객관적 상관물

<input type="checkbox"/> 자 <input type="checkbox"/> 무한 그루	'나'의 <input type="checkbox"/> 혹 <input type="checkbox"/> 러움과 <input type="checkbox"/> 편함을 참아야 하는 심리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input type="checkbox"/> 미울음소리	<input type="checkbox"/> 답하고 <input type="checkbox"/> 운 '나'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9. '노인'에 대한 '나'의 태도와 '노인'의 말하기 방식

(1) '노인'에 대한 '나'의 태도

'나'는 머니를 '인'이라고 칭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해 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냄. 자신과 어머니 사이를 질적인 것으로만 따지며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빚이 없다고 하는 '나'의 모습에서도 이를 알 수 있음.

(2) '노인'의 말하기 방식

노인은 지붕 개량 사업을 통해 을 다시 짓고 싶어 하는 소망을 드러냄. 하지만 자기 소망으로 인해 아들이 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며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회적으로 말하고 있음. 이러한 노인의 말하기 방식에서 노인의 아들에 대한 량, 사려 깊은 려심을 알 수 있음.

10. '나'와 노인 사이에서 아내의 역할

- '나'와 노인 사이의 재자
- 노인으로부터 거의 이야기를 끌어냄.
- '나'가 노인을 해하게 함.

TEST 2단계

1. <눈길>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순수 소설, [가] [ㅎ] 소설
성격	[ㅎ] [가] 적, [사] [자] 적, 서정적
시점	[오] [오] [춌] [자] [오] [가] 시점
배경	1970년대 여름(현재), 어느 [가] [오] (과거 회상) / 시골 고향집
제재	아들과 어머니의 [가] [다] 과 [ㅎ] [ㅎ]
주제	[오] [모] [나] 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가] [다] [오] 과 인간적 [ㅎ] [ㅎ]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ㅎ] [사] 과 [다] [ㅎ] 를 통해 [가] [가] 의 사실을 드러내는 [오] [사] [ㅎ] 적 [가] [사] 방식을 취함.</li> <li>• [사] [자] 적 의미를 가진 [사] [자] 를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li> <li>•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으며 [오] [르] [가] [모] [가] [자] 를 지님.</li> </ul>

2. <눈길>을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하기

오늘 점심	'나'가 내일 아침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말할.
어젯밤	어머니가 [자] [바] [가] [르] [사] [오] 을 통해 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냄. '나'는 이로 인해 심기가 불편해짐.
오늘 오후	아내가 어머니에게서 옛집과 [오] [가] 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내며 '나'와 어머니의 [ㅎ] [ㅎ] 를 시도함.
오늘 저녁, 밤	어머니가 '그날 새벽'의 [나] [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함. '나'가 어머니의 깊은 [사] [르] 을 깨달음.

3. <눈길>의 구조

발단	고향집에 온 '나'가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아쉬워하지만 곧 [춌] [나] 함.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인해 집이 몰락한 후 어머니와 '나'는 서로 주고받은 것 없이 살아왔기에 '나'는 어머니에게 진 [바] 이 [오] [다] 고 생각한다.</li> <li>• 어머니가 집을 고치고 싶다는 [사] [모] 을 드러내자 '나'는 이를 [오] [모] 함.</li> </ul>
위기	• '나'의 태도가 못마땅한 [오] [나] 는 어머니에게 옛집에 관한 과거 이야기를 [오] [가] [오] [나] [가], '나'는 [오] [자] 에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지냈던 [나] 을 떠올림.
절정	'나'가 자신이 떠난 뒤 [ㅎ] [르] [나] [가] 을 되돌아오던 날 [오] [모] [나] 의 [오] [오] [가] 를 듣게 됨.
결말	어머니의 [사] [르] 을 깨달은 '나'가 [나] [모] 을 흘림.

4. '옷궤'의 의미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 [가] [사] [오] [가] [가] 를 떠오르게 하는 물건</li> <li>• 노인에게 대한 '나'의 [바] (값을 길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오] [사] 하게 하여 [바] [표] [ㅎ] 을 주는 물건</li> </ul>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들에 대한 [바] [르] 와 [사] [르]</li> <li>• 과거 집안이 [오] [자] 했을 때의 기억을 [ㅎ] [가] 시키는 물건</li> <li>•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자] [자] [사]</li> </ul>
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와 노인 사이에 있었던 [오] [오] [가] 를 이끌어 내는 [사] [다]</li> <li>• '나'와 노인의 [ㅎ] [ㅎ] 의 [바] [바] 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사] [자]</li> </ul>

5. '눈길'의 상징적 의미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억하고 싶지 ○ ○ 추억</li> <li>집안이 □ □ 하여 ㅈ ㅅ ㅅ □ 해야 하는 □ □ 의 삶</li> </ul>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들에 대한 ㅎ ㅅ ㅈ ㅅ ㄹ</li> <li>혼자서 겪어야 하는 ㅅ ㄹ</li> <li>몰락한 집안에서 겪어 온 ○ ㄱ 의 ㅅ</li> </ul>

6. '불빛'과 '햇살'

불빛	햇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나'의 ㅈ ㅈ ㄱ	자식과 집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의 ㅈ ㅈ ㄱ

7. <눈길>의 결말 처리 방식

'나'는 자신을 떠나보내고 홀로 눈길을 되돌아온 ○ □ □ 의 ○ ○ ㄱ 를 듣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음. 그러한 '나'가 눈물을 감추기 위해 잠든 척 버티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 □ ㄱ 으로 소설을 마무리함으로써 ○ ○ 을 남기며 독자에게 ㅅ ㅅ 의 ○ ㅈ 를 주고 있음.

8. <눈길>에 나타난 객관적 상관물

ㅈ ㅈ	'나'의 ㄱ ㅎ ㅅ ㄹ ○ 과 ㅂ
ㄴ □	표 ㅎ 을 참아야 하는 심리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 □	ㄷ ㄷ 하고 ㄱ ㄹ ○ '나'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9. '노인'에 대한 '나'의 태도와 '노인'의 말하기 방식

(1) '노인'에 대한 '나'의 태도

'나'는 ○ □ □ 를 'ㄴ ○'이라고 칭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해 ㄱ ㄹ ㄱ 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냄. 자신과 어머니 사이를 □ ㅈ ㅈ 인 것으로만 따지며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빚이 없다고 하는 '나'의 모습에서도 이를 알 수 있음.

(2) '노인'의 말하기 방식

노인은 지붕 개량 사업을 통해 ㅈ 을 다시 짓고 싶어 하는 소망을 드러냄. 하지만 자기 소망으로 인해 아들이 ㅂ ㄷ 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며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 ㅎ ㅈ 으로 말하고 있음. 이러한 노인의 말하기 방식에서 노인의 아들에 대한 ㅅ ㄹ, 사려 깊은 ㅂ ㄹ ㅅ 을 알 수 있음.

10. '나'와 노인 사이에서 아내의 역할

- '나'와 노인 사이의 ㅈ ㅈ ㅈ
- 노인으로부터 ㄱ ㄱ 의 이야기를 끌어냄.
- '나'가 노인을 ○ ㅎ 하게 함.

O / X 문제

【1~20】 「눈길」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십시오.

1. 서사 갈래는 허구적 인물이나 사건을 특정한 시점에서 서술하는 문학 양식이다. .... (O / X)

2. 노인이 더 이상 아들을 붙잡지 않고 간단히 체념한 이유는 자신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편한 잠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다. .... (O / X)

3. 지열이 후끈거리는 뒤결 콩밭은 ‘나’의 곤혹스러움과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심리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 (O / X)

4. ‘나’는 집을 고치고 싶은 노인의 속마음을 모르고 먼저 지붕 개량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알고 싶지 않았던 노인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 .... (O / X)

5. 노인은 지붕 개량 사업을 통해 집을 다시 짓고 싶어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기 소망으로 인해 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며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 (O / X)

6. ‘나’에게 옷궤는 ‘빛 문서’처럼 보여 불쾌하고 꺼림칙하게 만드는 물건이다. .... (O / X)

7. ‘나’는 자신에게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는 ‘옷궤’에 대한 이야기를 노인이 꺼내도록 유도하는 ‘아내’를 내심 고맙게 여긴다. .... (O / X)

8. 노인에게 ‘옷궤’는 아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수단이자 과거 집안이 온전했을 때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불편한 물건이다. .... (O / X)

9. ‘불빛’은 ‘나’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하며 ‘나’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드러내고, ‘햇살’은 부모로서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자책감, 서글픔과 미안한 마음을 드러낸다. .... (O / X)

- |      |       |      |      |      |      |      |      |
|------|-------|------|------|------|------|------|------|
| 1. O | 2. X  | 3. X | 4. O | 5. O | 6. O | 7. X | 8. X |
| 9. O | 10. X |      |      |      |      |      |      |

고1  
공통국어1  
해낸

2027 고1 공통국어1 해낸 | 2(1) 눈길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알아 두기

1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성

서사 갈래는 허구적 인물이나 사건을 특정한 시점에서 서술하는 문학 양식이다. 서사 갈래는 주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때 사건은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문학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작가는 소설의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시점을 정하고 이를 자신만의 문체로 표현한다. 한국 문학의 서사 갈래에는 신화, 전설, 민담, 고전 소설, 신소설, 현대 소설 등이 있다.

2 서사 갈래의 구성 요소와 맥락

서사 갈래의 구성 요소로는 주제, 구성, 문체 등이 있다. 이때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의 짜임새를 말한다. 작가는 서술자를 통해 이러한 작품의 구성 요소를 자신만의 서술 방식, 즉 문체로 표현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 서사 갈래의 구성 요소들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작품 전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작품 전체의 이야기 구조를 형성한다.

한편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독자 등 작품 밖의 다양한 맥락이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고 작품을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여러 구성 요소와 맥락이 결합하여 완성된 한 편의 작품은 독자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준다.

핵심 정리



제재 지문

눈길

1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나는 마침내 입속에서 별러 오던 소리를 내뱉어 버렸다.

노인과 아내가 동시에 밥손가락을 멈추며 멀거니 내 얼굴을 건너다본다.

“내일 아침 올라가다니. 이참에도 또 그렇게 쉽게?”

노인은 결국 손가락을 상 위로 내려놓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친걸음이었다.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될 바엔 말이 나온 김에 매듭을 분명히 지어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어요. 방학을 얻어 온 학생 팔자도 아닌데, 남들 일할 때 저라고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나요. 급하게 말아 놓은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도 한 며칠 쉬어 가지 않고……. 난 해필 이런 더운 때를 골라 왔길래 이참에는 며칠 좀 쉬어 갈 줄 알았더니…….”

“제가 무슨 더운 때 추운 때를 가려 살 여유나 있습니까?”

“그래도 그 먼길을 이렇게 단걸음에 되돌아가기야 하겠냐. 넌 항상 한동자로만 왔다가 선걸음에 새벽길을 나서곤 하더라마는…… 이번에는 너 혼자도 아니고…… 하룻밤이나 차분히 좀 쉬어 가도록 하거라.”

“오늘 하루는 쉬었지 않아요. 하루를 쉬어도 제 일은 사흘을 버리는걸요. 찾길이 훨씬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기선 아직도 서울이 천 리 길이라 오는 데 하루 가는 데 하루…….”

“급한 일은 우선 좀 마무리를 지어 놓고 오지 않구선…….”

노인 대신 이번에는 아내 쪽에서 나를 원망스럽게 건너다보았다.

그건 물론 내 주변머리를 탓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게 것처럼 급한 일이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서울을 떠나올 때 급한 일들은 대충 다 처리해 둔 것을 그녀에겐 내가 미리 말을 해 줬으니까. 그리고 이번엔 좀 흥가분한 기분으로 여름 여행을 겸해 며칠 동안이라도 노인을 찾아보자고 내 편에서 먼저 제의를 했었으니까. 그녀는 나의 참을성 없는 심경의 변화를 나무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매정스런 결단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까닭 없는 연민과 애원기 같은 것이 서려 있는 그녀의 눈길이 그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래, 일이 그리 바쁘다면 가 봐야 하기는 하겠구나. 바쁜 일을 받아 놓고 온 사람을 붙잡는다고 들을 일이 겠나.”

한동안 입을 다물고 앉아 있던 노인이 마침내 체념을 한 듯 다시 입을 열어 왔다.

“항상 그렇게 바쁜 사람인 줄은 안다마는, 에미라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도 편한 잠자리 하나 못 마련해 주는 내 맘이 아쉬워 그랬던 것 같구나.”

말을 끝내고 무연스런 표정으로 장죽 끝에 풍년초를 꼭꼭 눌러 담기 시작한다.

너무도 간단한 체념이었다. 담배통에 풍년초를 눌러 담고 있는 그 노인의 얼굴에는 아내에게서와 같은 어떤 원망기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당신 곁을 조금씩 떠나고 싶어 하는 그 매정스런 아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도 엿볼 수가 없었다. 성냥불도 붙이려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풍년초 담배만 꼭꼭 눌러 채우고 앉아 있는 노인의 눈길은 차라리 무표정에 가까운 것이었다.

나는 그 너무도 간단한 노인의 체념에 오히려 불쑥 짜증이 치솟았다.

나는 마침내 자리를 일어섰다. 그리고는 그 노인의 무표정에 밀려나기라도 하듯 방문을 나왔다.

장지문 밖 마당가에 작은 치자나무 한 그루가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서 있었다.

## 2

지열이 후끈거리는 뒤꼍 콩밭 한가운데에 오리나무 무성한 묘지가 하나 있었다. 그 오리나무 그늘에 숨어 앉아 콩밭 아래로 내려다보니 집이라고 생긴 게 꼭 습지에 돋아 오른 여름 버섯 형상을 닮아 있었다.

나는 금세 어디서 묵은 빛 문서라도 불쑥 불거져 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애초의 허물은 그 빌어먹게 비좁고 음습한 단칸 오두막 때문이었다. 묵은 빛이 불거져 나올 것 같은 불편스런 기분이 들게 해 오는 것도 그랬고, 처음 예정을 뒤바꿔 하루 만에 다시 길을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내게 빛은 없었다. 노인에 대해선 처음부터 빛이 있을 수 없는 몇몇한 처지였다.

노인도 물론 그 점에 대해선 나를 완전히 신용하고 있었다.

“내 나이 일흔이 다 됐는데, 이제 또 남은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길라더냐.”

이가 완전히 삭아 없어져서 음식 씹생이 몹시 불편스러워진 노인을 보고 언젠가 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권해 본 일이 있었다. 싸구려 가치라도 해 끼우는 게 어땠겠느냐는 나의 말 선심에 애초부터 그래 줄 가망이 없어 보여 그랬던지 노인은 단자리에서 사양을 해버리는 것이었다.

“이력저력 지내다 이대로 가면 그만일 육신, 이제와 늘그막에 웬 딴 세상을 보겠다고…….”

한번은 또 치질기가 몹시 심해져서 배변을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수술 같은 걸 권해 본 일도 있었다.

노인은 그때도 역시 비슷한 대답이었다.

“나이를 먹어도 아녀자는 아녀자다. 어떻게 남의 눈에 굶은 데를 보이겠더냐. 그냥저냥 참다 갈란다.”

남은 세상이 얼마 길지 못하리라는 체념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보다 노인은 아무것도 아들에게 주장하거나 돌려받을 것이 없는 당신의 처지를 감득하고 있는 탓에도 그리 된 것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가게가 파산을 겪은 뒤부터,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 세 조카아이와 아이들의 홀어머니까지 포함한 장남의 모든 책임을 내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일은 줄곧 그렇게 되어 온 셈이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 3년을 치러 내는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고, 나는 또 나대로 그 고등학교와 대학과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도 자식 놈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다.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사양치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선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노인이었다. 한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노인의 눈치가 이상했다. 글썄 그 가치나 수술을 한사코 사양을 해 온 노인이, 나이 여든에서 겨우 두 해가 모자란 늘그막에 와서야 새삼스레 다시 탄 세상 희망이 생긴 것일까.

노인이 아무래도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도 너무나 엄청난 꿈이었다.

지붕 개량 사업이 애초의 허물이었다.

“집집마다 모두 도당 아니면 기와를 얹는단다.”

노인은 처음 남의 말을 하듯이 집 이야기를 꺼냈었다. 어제저녁 때 노인과 셋이서 잠자리를 들기 전이었다. 밤이 이슬해서 형수는 뒤늦게 조카들을 데리고 이웃집으로 잠자리를 얻어 나가고, 우리는 노인과 셋이서 그 비좁은 오두막 단칸방에 잠자리를 함께 폈다.

어기영차! 어기영……. 그때 어디선가 밤일을 하는 남정들의 합창 소리가 왁자하게 부풀어 올랐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무슨 소리냐니까 노인이 문득 생각난 듯이 귀땀을 해 왔다.

“동네가 너도나도 집들을 고쳐 짓느라 밤잠들을 안 자고 저 야단들이구나.”

놓여준 지붕 개량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통일벼가 보급된 후로는 집집마다 그 초가지붕 개초가 어렵게 되었

됐다. 초봄부터 시작된 지붕 개량 사업은 그래저래 제격이었다. 지붕을 개량하면 정부 보조금 5만 원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모심기가 시작되기 전 봄철 한때하고 모심기가 끝난 초여름께부터 지금까지 마을 집들 거의가 일을 끝냈었다.

나는 처음 그런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턱대고 가슴부터 덜렁 내려앉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빛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이었다. 이 노인이 쓸데없는 소망을 지니면 어쩌나.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무엇보다도 나는 노인에 대해 빛이란 게 없었다. 노인이 그걸 잊었을 리 없었다.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선부른 주문을 내색할 리 없었다. 전부터도 그 점만은 안심을 할 만한 노인의 성깔이었다. 한데다 노인이 설령 어떤 어울리잖을 소망을 지닌다 해도 이번에는 그 집 꼴이 문제 밖이었다. 도대체가 기와고 도당이고 지붕을 가꿀 만한 집 꼴이 못 되었다. 그래저래 노인도 소망을 지녀 볼 엄두를 못 낸 모양이었다. 이야기하는 말투가 영락없는 남의 일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오해였다. 노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이 집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겠군요?”

사태를 너무 낙관한 나머지 위로 겸해 한마디 실없는 소리를 내놓은 것이 내 실수였다.

노인은 다시 자리를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머리맡에 놓아 둔 장죽 끝에다 풍년초 한 줌을 쏘아 박기 시작했다.

“왜 우리 집이라 말썽이 없었더라냐.”

노인은 여전히 남의 말을 옮기듯 덩덤히 말했다.

“이장이 쫓아와 뜰을 들이고, 면에서 나와서 으름장을 놓고 가고……. 그런 일이 한두 번뿐이었으면야……. 나중엔 숯제 자기들 쪽에서 사정 조로 나오더라.”

“그래 어머니 뭐라고 우겼어요?”

나는 아직도 노인의 진심을 모르고 있었다.

“우길 것도 뭇도 없는 일 아니겠냐. 지놈들도 눈깔이 제대로 박힌 인간들일 것인데…… 사정을 해 오면 나도 똑같이 사정을 했더니라. 늙은이도 사람인디 나라고 어디 좋은 집으로 손봐 살고 싶은 맘이 없겠소. 맘으로야 천 번 만 번 우리도 남들같이 기와도 입히고 기둥도 갈아 내고 하고는 싶지만 이 집 꼴을 좀 들여다보시오들. 이 오막살이 흙집 꼴에다 어디 기와를 얹고 말 것이 있겠소…….”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몇 번 더 발길을 스쳐 가더니 그 담엔 흐지부지 말이 없더라. 지놈들도 이 집 꼴을 보면 사정을 모

를 청맹과니들이더라냐?”

노인은 그 거칠고 굵은 엄지손가락 끝으로 뜨거운 장죽 끝을 꺾꺾 눌러 대고 있었다.

“그 친구들 아마 이 동네를 백 퍼센트 지붕 개량으로 모범 마을을 만들고 싶어 그랬던 모양이구만요.”

나는 이제 그만 기분이 씩씩해져 그런 식으로 슬쩍 이야기를 얼버무려 넘기려 하였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결정적인 실수였다.

“하기사 그 사람들도 그런 소리들을 하더라. 오늘 밤일을 하는 저 집을 끝내고 나면 이 동네서 이제 지붕 개량을 안 한 집은 우리하고 저 아랫동네 순심이네 두 집밖엔 안 남는다니 말이다.”

“그래도 동네 듣기 좋은 모범 마을 만들자고 이런 집에까지 꼭 기와를 얹으라 하겠어요.”

“글쎄 말이다. 차라리 지붕에 기와나 도당만 얹으셨으면 우리도 두 눈 딱 감고 한번 저질러 보고 싶기도 하더라마는, 이런 집은 아예 터부터 성주를 다시 할 집이라 그럴제…….”

모범 마을이 꼬투리가 되어 이야기가 다시 엉뚱한 곳으로 번지고 있었다. 나는 비로소 다시 가슴이 섬찟해 왔다. 하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고 말았다.

“하기사 말이 쉬운 지붕 개량이지 알숙은 실상 새 성주를 하는 집도 여러 집 된단다.”

한번 이야기를 꺼낸 노인이 거기서부터는 새삼 마을 사정을 소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지붕 개량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 사실 융통성이 꽤나 많은 일이었다. 원칙은 그저 초가지붕을 벗기고 기와나 도당을 얹는 것이었지만, 기와의 하중을 견뎌 내기 위해선 기둥을 몇 개쯤 성한 것으로 갈아 넣어야 할 집들이 허다했다. 그걸 구실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주를 새로 하듯 집들을 터부터 고쳐 지어 버렸다. 노인에게도 물론 그런 권유가 여러 번 들어왔다. 기둥이 허술해서 기와를 못 얹는다는 건 구실일 뿐이었다. 허술한 기둥을 구실로 끝끝내 기와 얹기를 미뤄 온 집이 세 가구가 있었는데, 이날 밤에 또 한 집이 새 성주를 위해 밤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인이 기와 얹기를 단념한 것은 집 기둥이 너무 허해서가 아니었다. 노인은 새 성주가 겹이 나 일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허술한 기둥만 믿을 수는 없었다.

일은 아직도 낙관할 수 없었다. 나는 불시에 다시 그 노인에 대한 나의 빛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도 거기서 한동안은 그저 꺼져 가는 장죽 불에만 신경을 쏟고 있는 기색이었다. 하더니 이윽고는 더 이상 소망을 숨기기가 어려운 듯 가는 한숨기를 삼켰다. 그러고는 그 한숨기 끝에 무심결인 듯 덧붙여 왔다.

“이참에 웬만하면 우리도 여기다 방 한 칸쯤이나 더 늘려 내고 지붕도 도당으로 얹어 버리면 싶긴 하더라만…….”

마침내 노인이 당신의 소망을 내비친 것이었다.

“오늘 당할지 낼 당할지 모를 일이긴 하다만, 날짐승만도 못한 목숨이 이리 모질기만 하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구나. 저런 옷褂 하나도 간수할 곳이 없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다 보면 어떤 땐 그저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아지기도 하고…….”

노인은 결국 그런 식으로 당신의 소망을 분명히 해버리고 만 셈이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소망을 지녔던 것만은 분명히 한 것이다.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었다. 눈을 감은 채 듣고만 있었다. 노인에게 해선 빛이 없음을 골백번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면에서도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 주더라도 내년엔 또 이번처럼 어떻게 잠잠해 주거나 할는지. 하기사 면 사람들 무서워 집을 고친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늙은이 냄새가 싫어 그런지 그래도 한 데서 등짝 붙이고 누울 만한 방 놔두고 밤마다 남의 집으로 잠자릴 얻어 다니는 저것들 예미 꼴도 모른 체하지는 못 할 일 이더니라.”

내가 아예 대꾸를 앓으니까 노인은 이제 혼잣말 비슷한 푸념을 계속했다. 듣다 보니 노인의 머릿속엔 이미 꽤 구체적인 계획표까지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나라에서 보조금을 5만 원이나 내주겠다. 일을 일단 저지르고 들었더라면 큰돈이야 얼마나 더 들 일이 있었을라더냐……. 남정네가 없어 남들처럼 일손을 구하기가 쉽진 않았겠지만, 네 형수가 여름 한철만 밭을 매 주기로 했으면 건넌집 용석이 아베라도 그냥 모른 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흫이를 돌볼 사람은 그 용석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기둥을 갈아 널 나무 가대는 이장네 산에서 헐값으로 몇 개 부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였다.

노인의 장죽 끝에는 이제 불기가 꺼져 식어 있었다.

노인은 연신 그 불이 꺼진 장죽을 빨아 대며, 예의 면 보조금 5만 원과 이웃 도움이 아까워서라도 일을 단념하기가 아쉬웠다는 투였다.

하지만 노인은 그러면서도 끝끝내 내게 대한 주장이나 원망의 빛을 보이진 않았다. 이야기의 형식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로써 그런 생각을 해 봤을 뿐이고, 그럴 뻔했다는 말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에게 해선 어떤 형식으로도 직접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는 식이었다. 말하는 목소리도 끝끝내 그 체념기가 짙은 특유의 침착성을 잃지 않은 채였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다. 세상일이 그렇게 맘 같이만 된다면야 나이 먹고 늙은 걸 설워 안 할 사람이 있

올라더냐. 나이를 먹으면 애기가 된다더니 이게 다 나이 먹고 늙어 가는 노망기 한가지제.”

종당에는 그 은밀스런 당신의 소망조차 당신 자신의 실없는 노망기 탓으로 돌려 버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노인의 내심을 못 알아볼 리 없었다. 한마디 말참견도 없이 눈을 감고 잠이 든 척 잠잠히 누워만 있던 아내까지도 그것을 분명히 눈치채고 있었다.

“당신, 어젯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응대해 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 아내는 마당가로 세숫물을 떠 들고 나왔다가 낮은 소리로 추궁을 해 왔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그저 쓸데없는 참견 말라는 듯 눈매를 잔뜩 꺾아 떠 보였었다. 하니까 아내는 그러는 나를 차라리 경멸조로 나무랐다.

“당신은 참 영뚱한 데서 독해요. 늙은 노인네가 가엾지도 않으세요. 말씀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예요.”

아내도 분명 노인의 말뜻을 알아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노인의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내 속마음도 속속들이 모두 읽고 있는 게 당연했다. 내일 아침으로 서둘러 서울로 되돌아가겠노라는 나의 결정에 아내가 은근히 분개하고 나선 것도 그런 사연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다고 그들 무슨 뽀족한 수가 있을 수가 있는가.

어쨌든 노인이 이제라도 그 집을 새로 짓고 싶어 하고 있는 건 분명했다. 아무래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노인들은 모두 어린애가 되어 가는 것일까. 노인이 정말로 내게 빛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인가. 노인의 말처럼 그건 일테면 노망기가 분명했다. 그런 염치도 못 가릴 정도로 노인은 그렇게 늙어 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굳이 노인의 그런 노망기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문제는 서로 간의 빛의 문제였다. 노인에 대해 빛이 없다는 사실만이 내게는 중요했다. 염치가 없어져서건 노망을 해서건 노인에 대해 내가 갚아야 할 빛만 없으면 그만이었다.

—빛이 있을 리 없지. 절대로! 글썄 노인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정면으로는 말을 꺼내지 못하질 않던가 말이다.

어디선가 무덥고 게으른 매미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비로소 마음을 굳힌 듯 오리나무 그늘에서 몸을 힘차게 일으켜 세웠다. 콩밭 아래로 흘러 뺨은 마을이 눈앞으로 멀리 펼쳐져 나갔다. 거기 과연 아직 초가지붕을 이고 있는 건 노인네의 버섯 모양 오두막과 아랫동네의 다른 한 채가 전부였다.

—빌어먹을! 그 지붕 개량 사업인지 뭔지 하필 이런 때 법석들일구?

아무래도 심기가 편할 수는 없었다. 나는 공연히 그 지붕 개량 사업 쪽에다 애꿎은 저주를 보내고 있었다.

3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내의 연이은 질문으로 어머니가 죽음에 대비하고자 집을 개량하고 싶어 했음을 알게 된다.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가 어머니의 옛집에 대한 기억 회상으로 이어지자 ‘나’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 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 옷게 이야기였다. 17, 1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시에서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나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엘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 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듣고 온 대로였다. 집은 텅텅 빈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 간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에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데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 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이야 안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 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하룻밤만이라도 내게 옛집의 모습과 옛날 같은 분위기 속에 맘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해 주고 싶어하였을 터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썰렁한 집안 분위기가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건만.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 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 이불 한 채와 옷궤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 두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서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 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옷궤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내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었다.

그런 내력이 숨겨져 온 옷궤였다.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 온 옷궤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 온 물건이었다. 노인에게 빛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지내다가도 그 옷궤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빛 문서를 만난 듯 기분이 꺼림칙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노인의 방에 들어선 순간에 벌써 기분을 불편스럽게 해 오던 옷궤였다. 그리고 끝내는 이틀 밤을 못 넘기고 길을 다시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도 알고 보면 바로 그 옷궤의 허물이 컸을지 모른다.

아내도 물론 그 옷궤에 관한 내력을 내게서 들을 만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여자라면 그 옷궤에 대한 내 기분도 짐작을 못 할 그녀가 아니었다. 아내는 일부러 그 옷궤 이야기를 꺼냈음이 분명했다. 더욱이 내가 바깥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걸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

나는 어느새 콧속을 후벼 대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묵은 빛 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노인이 치사하게 그 묵은 빛 문서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덤빌 수도 있었다.

—그래 보라지. 누가 뭐래도 내겐 절대로 빛진 게 없으니까. 그래 본들 없는 빛이 생길 리가 있을라구.

나는 거의 기구를 드리듯 눈을 감고 기다렸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그 무심스러워 보이기만 한 노인의 대꾸였다.

“옷궤를 내놓으면 몸에 걸칠 옷가지는 다 어디다 간수하고야? 어디다 따로 내놓을 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어디다 내놓을 데가 생긴다고 해도 그것 말고는 옷가지 나부랑일구 간수해 둘 데가 있어알 것 아니냐.”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노인이 그 옷궤 쪽에는 그리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옷이야 어떻게 못을 박아 걸더라도, 사람이 우선 좀 발이라도 뺀고 누울 자리가 있어야잖아요. 이건 뭐 사람보다도 옷장을 모시는 꼴이지 뭐예요.”

아내는 거의 역지를 부리고 있었다. 옷궤에 대한 노인의 집착심을 시험해 보기 위한 수작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노인의 반응은 여전히 의연했다.

“그건 네가 모르는 소리다. 그 옷궤라도 하나 없으면 이 집을 누가 사람 사는 집이라 할 수 있겠냐. 사람 사는 집 흔적으로 해서라도 그건 집안에 지녀야 할 물건이다.”

“어머님은 아마 저 옷장에 그럴 만한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시집오실 때 해 오신 건가요?”

노인의 나이가 너무 높다 보니 아내는 때로 그 노인 앞에 손주딸처럼 버릇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슷제 장난기 한가지였다.

“내력은 무슨…….”

노인은 이제 그것으로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옷궤 이야기는 더 이상 들추고 싶지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 쪽도 그쯤 호락호락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다. 노인이 입을 다물어 버리자 아내도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침묵을 지키고 있더니, 이윽고 다시 새판잡이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하긴 어쨌거나 어머님 마음이 편하진 못하시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옛날 사시던 집을 지켜 오시는 게 제일 좋으셨을 텐데 말씀예요. 도대체 그 집은 어떻게 해서 팔리게 되었어요?”

다시 그 집 얘기였다. 그 역시 모르고 묻는 소리가 아니었다. 아내는 그 옷궤의 내력과 함께 집이 팔리게 된 사정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었다. 하면서도 그녀는 다시 노인에게 그것을 되풀이시키려 하고 있었다.

옷궤를 구실로 그 노인의 소망을 유인해 내려는 그녀 나름의 노력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태도도 아직은 그 아내 못지않게 끈질긴 데가 있었다.

“집이 어떻게 팔리기는……. 안 팔아도 좋을 집을 뭘 장난삼아 팔았을라더냐. 내 집 지니고 살 팔자가 못 돼 그리 된 거제…….”

알고도 묻는 소릴 노인은 또 노인대로 내력을 얼버무려 넘기려고 하였다.

“그래도 사정은 있었을 거 아녜요? 그 집을 지을 때 돌아가신 아버님이 몹시 고생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집이야 참 어렵게 장만한 집이었지야. 남같이 한 번에 지어 올린 집이 아니고 몇 해에 걸쳐서 한 칸씩 두 칸씩 살림 형편 좇아서 늘려 간 집이었더니라. 그렇게 마련한 집이 결국은 내 집이 못 되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소린 해서 뭣을 하겠냐. 어차피 내 집이 못 될 운수라 그리 된 일을 이런 소리 곱씹는다고 팔려 간 집 다시 내 집이 되어 돌아올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리 어렵게 장만한 집이라 애석한 생각이 더할 게 아녜요. 지금 형편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되어 그리 되고 말았는지 그때 사정이라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만되라.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제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기억도 많이 희미해진 일이고…….”

한사코 이야기를 피하려는 노인에게 아내는 마침내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좋아요. 어머님께선 아마 지난 일로 저까지 공연히 속을 상하게 할까 봐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그래도 별 소용이 없으세요. 저도 사실은 이야기를 대강 다 들어 알고 있단 말씀예요.”

“이야기를 들어? 누구한테서?”

노인이 비로소 조금 놀라는 기미였다.

“그야 물론 저 사람한테지요.”

노인의 물음에 아내가 대답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밖에서 엿듣고 있는 나를 지목한 말투가 분명했다. 짐작대로 그녀는 벌써부터 내가 밖에서 엿듣고 있는 낚새를 알아차리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집을 팔게 된 사정만도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저 사람한테 그 팔려 간 집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 주신 일도 모두 알고 있단 말씀예요. 모른 척하고 있기는 했지만 저 옷장 말씀예요. 그날 밤에도 어머님은 저 헛 옷장 하나를 집 안에다 아직 남겨 두고 계셨더라면서요. 아직도 저 사람한테 어머님이 거기서 살고 계신 것처럼 보이시려고 말씀이에요.”

아내는 차츰 목소리가 떨려 나오고 있었다.

“그렇담 어머님, 이제 좀 속 시원히 말씀해 보세요. 혼자서 참아 넘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말씀이라도 하셔서 속을 후련히 털어놔 보시란 말씀이에요. 저흰 어머님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한테까지 어머님은 어째서 그렇게 말씀을 참아 넘기려고만 하세요.”

아내의 어조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노인도 이젠 어찌할 수가 없는지, 한동안 묵묵히 대꾸가 없었다.

나는 온통 입안의 침이 다 말랐다. 노인의 대꾸가 어떻게 나올지 숨도 못 쉰 채 당신의 다음 말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내나 나의 조바심과는 아랑곳없이 노인은 끝내 심기를 흐트리지 않았다.

“그래 그 아그(아이)도 어떻게 아직 그날 밤 일을 잊지 않고 있더냐?”

“그래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님은 저 사람이 집을 못 들어가고 서성대고 있으려니까 그 집이 아직 안 팔린 것처럼 저 사람을 안으로 데려다가 저녁까지 한 끼 지어 먹이셨다면서요?”

“그럼 됐구나. 그렇게 죄다 알고 있는 일을 뭐 하러 한사코 나한테 되뇌게 하려느냐.”

“저 사람은 벌써 잊어 가고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선 진짜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요. 사람이 모질어 저 사람은 그런 일 일부러 잊어요. 그래 이번엔 어머님한테서 진짜 이야길 듣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얘기 말고 어머

님의 그날 밤 진짜 심경을 말씀이에요.”

“심경이나마나 저하고 별다른 대목이 있었을라더냐. 사세부득해서 팔았다곤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내 발길이 끊이지 않은 집인데, 그 집을 놔 두고 그 아그가 그래 발길을 주춤주춤 어정대고 서 있더구나…….”

아내의 성화를 견디다 못해 노인은 결국 마지못한 어조로 그날 밤 일을 얼핏 돌이키고 들었다. 어조에는 아직도 그날 밤의 심사가 조금도 실려 있지 않은 채였다.

“그래 저를 나무래서 냉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니라. 그리고 더운밥 지어 먹여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 가지고 동도 트기 전에 길을 되돌려 떠나보냈더니라…….”

“그래 그때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찌기는야. 팔린 집이나마 거기서 하룻밤 저 아그를 재워 보내고 싶어 싶은 골목 드나들며 마당도 쓸고 걸레질도 훑치며 기다려 온 에미였는디, 더운밥 해 먹이고 하룻밤을 재우고 나니 그만만 해도 한 소원은 우선 풀린 것 같더구나.”

“그래 어머님은 흡족한 기분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셨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정말로 그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어머님은 정말로 그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실 수 있으셨을까 말씀이에요. 아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였다 치더라도 어머님 자신은 그때 변변한 거처 하나 마련해 두시지 못하셨을 처지에 말씀이에요.”

“나더러 또 무슨 이야길 더 하라는 것이냐.”

“그때 아들을 떠나보내실 때 어머님 심경을 듣고 싶어요. 객지 공부 가는 어린 아들을 그런 식으로 떠나보내시면서 어머님 자신도 거처가 없이 떠도셔야 했던 그때 처지에서 어머님이 겪으신 심경을 말씀예요.”

“그만두거라. 다 쓸데없는 노릇이니라. 이야기를 한들 그때 마음이야 네가 어찌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겠냐.”

노인이 다시 이야기를 사양했다. 그러나 그 체념기가 완전한 노인의 어조에는 아직도 혼자 당신의 맘속으로만 지녀 온 어떤 이야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내 기미를 눈치채고 있었다 하더라도 노인만은 아직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의 말을 그쯤에서 중단시켜야 했다. 아내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게까지 그것을 알게 하고 싶지는 않을 노인이었다. 내 앞에선 더 이상 노인의 이야기가 계속되어 갈 수 없었다.

나는 이윽고 헛기침을 한 번 하고서 그 노인의 눈길이 닿고 있는 장지문 앞으로 모습을 불쑥 드러내고 나셨다.

4

위험한 고비는 그럭저럭 모두 지나가고 있었다.

저녁상을 들일 때 노인은 언제나처럼 막걸리 한 되를 가져오게 하였다. 형의 술버릇 때문에 집안 꼴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노인은 웬일로 내게 그리 술 걱정을 하지 않았다. 집에만 가면 당신이 손수 막걸리 한두 되씩을 꼭꼭 미리 마련해다 주곤 하였다.

—한잔 마시고 잠이나 자거라.

그러면서 낮참부터 늘 잠자기를 권했다.

이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정 내일 아침으로 길을 나설라냐?”

저녁상이 들어왔을 때 노인은 그렇게 조심스런 목소리로 나의 내심을 한 번 더 떠왔을 뿐이다.

“가야 할 일이 있으니까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노인에게 공연히 짜증기 선 목소리로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하니까 노인은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그래 알았다. 저녁하고 술이나 한잔하고 일찍 쉬거라.”

아침부터 먼 길을 나서려면 잠이라도 일찍 자 두라는 단속이었다. 나는 말없이 노인을 따랐다. 저녁 곁해서 술 한 되를 비우고 그리고 술기를 못 건디는 사람처럼 일찌감치 잠자리를 펴고 누웠다. 이윽고 형수님이 조카들을 데리고 잠자리를 찾아 나가자 이날 밤도 우리는 세 사람 합숙이었다.

어쨌거나 이제 위태로운 고비는 그럭저럭 거의 다 넘겨 가고 있는 셈이었다. 눈을 붙였다 깨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건 끝난다. 지붕이 고 웃궤고 더 이상 신경을 쓸 일이 없어진다. 노인에게 숨겨진 빛 문서가 있을까. 하지만 이날 밤만 무사히 넘기고 나면 노인의 빛 문서도 그걸로 영영 휴지가 되는 것이다.

—잠이나 자자. 빛이고 뭐고 잠들면 그만이다. 노인에게 빛은 내가 무슨 빛이 있단 말인가…….

나는 제법 흥가분한 기분으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술기 탓인지 알알한 잠기운이 이내 눈꺼풀을 덮어왔다.

한데 얼마쯤 그렇게 아늑한 졸음기 속을 헤매고 났을 때였을까. 나는 웬일인지 문득 다시 잠기가 서서히 얽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어렵푹한 선잠기 속에 도란도란 조심스런 노인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사말로 갑자기 웬 눈이 그리 많이 내렸던지 잠을 잤으면 얼마나 잤겠느냐마는 그래도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바깥이 원통 환한 눈 천지로구나……. 눈이 왔더라도 어쩔 수가 있더냐. 서둘러

밥 한술씩을 꿀여다가 속을 덥히고 그 눈길을 서둘러 나섰더니라……”

나는 다시 정신이 번쩍 들고 말았다. 어찌 된 일인지 노인이 마침내 그날 밤 이야기를 아내에게 가닥가닥 털어놓고 있는 중이었다.

“처지가 땃땃했으면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에 길을 나설 수도 있었으련만, 그땐 어찌도 그리 처지가 부끄럽고 저주스럽기만 했던지……. 그래 할 수 없이 새벽 눈길을 들어서 나섰지만, 시오 리나 되는 장터 차부까지 산길이 멀기는 또 얼마나 멀더랴.”

기억을 차근차근 더듬어 나가고 있는 노인의 몽롱한 목소리는 마치 어린 손주에게 옛이야기라도 들려 주는 할머니의 그것처럼 아늑한 느낌마저 깃들이고 있었다.

아내가 결국은 노인을 거기까지 유도해 냈음이 분명했다.

——이야기를 한들 네가 어찌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겠냐…….

낮결에 노인이 말꼬리를 한 가닥 깔고 남은 기미를 아내가 무심히 들어 넘겼을 리 없었다.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 아내에게 한 번도 들려준 일이 없는 그날 새벽의 서글픈 동행을, 나 자신도 한사코 기억의 피안으로 사라져 주기를 바라 오던 그 새벽의 눈길의 기억을 노인은 이제 받아 낼 길 없는 묵은 빛 문서를 들추듯 허무한 목소리로 되씹고 있었다.

“날은 아직 어둡고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차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대어 갈 수가 있었구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의 머릿속에도 마침내 그날의 정경이 손에 닿을 듯 역력히 떠올랐다. 어린 자식 놈의 처지가 너무도 딱해서였을까, 아니 어쩌면 노인 자신의 처지까지도 그 밖엔 달리 도리가 없었을 노릇이었는데도 모른다. 동구 밖까지만 바래다 주겠다던 노인은 다시 마을 뒷산 잣길까지 나를 좀 더 바래 주마 우겼고, 그 잣길을 올라선 다음엔 새 신작로가 나설 때까지 산길을 함께 넘어가자 우겼다. 그럴 때마다 한 차례씩 애슬린 실랑이를 치르고 나면 노인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수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동네를 나서는 건 노인이나 나나 생각을 안 했다. 그나마 그 어둠을 타고 마을을 나서는 것이 노인이나 나나 마음이 편했다. 노인의 말마따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미끄러지면 노인이 나를 부축해 일으키고, 노인이 넘어지면 내가 당신을 부축해 가면서, 그렇게 말없이 신작로까지 나섰다. 그러고도 아직 면소 차부까지는 길이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면소 차부까지도 노인과 함께 신작로를 걸었다.

아직도 날이 밝기 전이었다.

하지만 그러고 우리는 어찌 되었던가.

나는 차를 타고 떠나갔고, 노인은 거기서 다시 어둠 속의 눈길을 되돌아서야 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뿐이었다.

노인이 그 후 어떻게 길을 되돌아갔는지는 나로서도 아직 들은 바가 없었다.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 두고 차로 올라선 그 순간부터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하기가 싫었고, 노인도 오늘까지 그날의 뒷얘기는 들려준 일이 없었다. 그런데 노인은 웬일로 오늘사 그날의 기억을 끝까지 돌이키고 있었다.

“어떻게 어떻게 장터거리로 들어서서 차부가 저만큼 보일 만한 데까지 가니 그때 마침 차가 미리 불을 켜고 차부를 나오더구나. 급한 김에 내가 손을 휘저어 그 차를 세웠더니, 그래 그 운전사란 사람들은 어찌 그리 길 이 급하고 매정하기만 한 사람들이더냐. 차를 미처 세우지도 덜하고 덜크렁덜크렁 눈깜짝할 사이에 저 아그를 훌쩍 실어 담고 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히 입을 다문 채 듣고만 있던 아내가 모처럼 한마디 끼어들었다.

나는 갑자기 다시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졌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이야기를 가로막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온몸이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몸을 어떻게 움직여 볼 수가 없었다.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같은 것이 나를 아늑히 감싸 오고 있었다.

“어떻게 하기는야. 냇이 나간 사람마냥 어둠 속에 한참이나 찾길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야……. 그 허 망한 마음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을 거나…….”

노인은 여전히 옛얘기를 하듯 하는 그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돌아오더구나. 정신이 들어 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스럽 지 않았겠냐. 지금까지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 함께 헤쳐 온 길인데 이참에는 그 길을 늙은 것 혼자서 되돌아서려니……. 거기다 아직도 날은 어둡지야……. 그대로는 암만 해도 길을 되돌아설 수가 없어 차부를 찾아 들어갔더니라. 한 식경이나 차부 안 나무 걸상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려니 그제사 동녘 하늘이 흰해져 오 더구나…….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을 서둘러 나섰는데, 그때 일만은 언제까지도 잊힐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그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돌이 걸어 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겠냐.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 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아그 녀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 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그 외지기만 한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돌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겠냐. 오목오목 디더 논 저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밟고 왔제…….”

노인의 이야기가 거진 끝이 나 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그런디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렇저렇 시름없이 걸어 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뒷산까지 당도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길로는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어 잣등 위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라…….”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을 채근하고 나섰다.

그 목소리가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나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이젠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 보세요.”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꼭꼭 눌러 참으며 내쳐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노인뿐이었다.

“가만두거라. 아침 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데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 뭣 하러 그러냐.”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 두고 나서 아직도 그 옛얘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그런디 이것만은 네가 좀 잘못 안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잣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깃들일 데 마련이 안 됐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 있는데,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창 인디 그렇게 시린 눈을 해 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져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 《문예중앙》 1977. 겨울 호